

경기도문화원 역량강화사업

2016 경기도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결과보고서



<2016 경기도문화원역량강화>

- -

경기도 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결과보고서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2016 경기도문화원역량강화>
경기도 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결과보고서

목차

I. 사업개요

II. 진행과정

1.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24차 정기총회
3. 201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4. 2015년도 하반기 임시총회
5. 2015년 주요키워드
6.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7. 제25차 정기총회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3월)
9.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10.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III. 결과

1. 도연합회 육성조례 제정
-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나.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2015년 연장 추진사업)

다. 사업내용 :

1) 현 정책현안 토론 및 조직경영선진화, 사업운영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2) 토론 및 위원회 운영 성과 집계 후 결과보고서 제작

라.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마.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사업목적

가.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 강화

나.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모색 및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강화

조직/경영선진화

법,제규정 정비

조직/경영 안정화

네트워크 강화

사업추진역량선진화

기획역량강화

일관된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문화자원구조의 다양화 모색

3. 추진방향 및 역할



4. 추진일정

시기	내용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_ 제1차 운영위원회 _ 제24차 정기총회
2015년	- 제2차 운영위원회 _ 하반기 임시총회 _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2016 아젠다 선포>
3월	○ 사업 기획 및 컨셉도출 기획회의 ○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전체방향설정)
4월	○ 현황 데이터 분석 및 자료집적 _ 의제(안) 도출
8월	○ 제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_ 제2차 운영위원회
10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안건 ○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_ 조직경영선진화/사업추진역량선진화 방안 채택
12월	○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 1년간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제작 ○ 마무리평가 및 정산

5. 지속가능발전 결과물 도출

아젠다 (Agenda) 제안

조직/경영선진화

- 법적/제도적 정비 _ 정관, 내부규정 정비
- 조직정비 및 안정화 _ 회원제도, 사무국, 위탁기관, 부설기관, 산하단체, 동아리 등
- 행정문서 표준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 기타

사업추진역량선진화

- 문화재원구조의 다양화 방안 모색(지자체 의존도 탈피를 통한 위상강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_ 회원구조정비(문화시민육성기관으로서의 문화원)
-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원 장점 극대화 방안 모색 (축제, 기념식 등)
- 네트워크를 활용한 향토문화사업의 제안 및 추진(향토문화연구소강화 등)
- 문화원 기획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6. 기대효과

가. 경기도지방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마련

나. 경기도 문화원 중심의 일관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II . 진행과정

1.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24차 정기총회
3. 201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4. 2015년도 하반기 임시총회
5. 2015년 주요키워드
6.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7. 제25차 정기총회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3월)
9.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10.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여 백

1. 2015년도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오전11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참석자 : 재적 12명 중 11명 참석
(수원, 용인 부천, 연천, 양평, 안산, 광명, 오산, 남양주, 여주, 고양), 위임 1명(의정부)

의장(회장 염상덕) 먼 곳에서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느라 각 원장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셔서 크게 무리 없이 한 700만원정도 감액된 4억 8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3억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문광위원회 의원 중 어느 도의원이 문화원은 일을 못한다고 4억8천700만원 중에서 2억을 삭감시킨겁니다. 예산심의 라는 것이 물론 사업비가 1억이다 하면 2천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천만원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야 하는데 일 못한다고 2억을 딱 삭감한 거예요. 사업내용은 보지도 않고. 문광위원이나 해당 시, 군의 원장님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천원장님, 용인원장님, 안산원장님께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이필구 문광위원장과 류재구 예결위원장이 부천사람이죠. 그래서 부천원장님한테 많이 전화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조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 감액된 정도로 잘 세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경에 페스티벌31 행사를 sk아트트리움에서 처음 했는데 원장님들이 많이 협조 해주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작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연출하는 사람들
동원해주셔서 행사가 잘 끝났다는 평을 원장님들과 보신 분들도 말
씀 해주셨지만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단체 못지않게 문화원연합회에서 잘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활문화
공동체사업과 지방문화원총람발간의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
다. 그래서 31개 문화원의 현황, 사업 등을 파악해보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또 남경필지사가 따복마을 정책 사
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생활문화공
동체사업은 과거에 썼던 농기구라던지 식생활품 등을 수집해서 전
시회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
으로 금년에 전국민속청년대회를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합니다. 각
시, 도 별로 순회 개최하는데, 11번째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
가 이곳저곳을 물색하여 평택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작년에 결정한 대로 오산에서 하는 것으
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합회에서 보면 금년도 임기 만료되는 분들이 2015년에 십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몇 분은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몇
분은 연임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또 물어
보기가 어렵지요. 본인들이 나는 그만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
습니다. 한 십여분 해당이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지금 부회장이
이만구 원장님이 작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

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자리도 공석이 되고요, 아마 임원의 교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우수민족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죠. 도에서 47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었는데 한 570여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금년에 전부 못 준다.” 라고 해서 올해부터 보조가 안 될 겁니다. 각 지역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도에서는 “연합회 예산 중 4천정도 편성해서 한 10개 단체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한 300만원씩”, 하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안을 잡아보았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서 각 문화원의 홍보사항을 책으로 엮어서 낸 적이 있죠. 금년에도 3천만 원은 경기일보와 협력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2014년도 사업 추진 실적, 예산 결산(안) 심의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안) 심의의 건, 임원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 정기총회 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 이 사항들을 잘 검토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의문이 있는 부분, 이상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 사무처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문화원에서 회비 미납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예, 회비는 전부다 완납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09-2010년도 회비 미납 부분은 예전 연천문화원이 일체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미납 된 부분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안건 상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일체 문화원 운영이 되
지 않는 상황에서 감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건상
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었고,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들
에 대해서 향후에 추후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회비를 분할하여 완
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었습니다. 군포문화원 회비는 전부 다 완납
돼 있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우
리 문화원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사무국장간 소송으로 거
의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7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
었던 회비를 매년 제가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이 190만원 정도입니다.

<중략>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이경순 연천문화원장님이 감사를 고맙게
잘 해주셨고, 감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님이 최대한 열심히
꾸렸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한 문제는 그간 집행부 직원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권고사항에 대

한 지적사항을 잘 해주셔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감사합니다. 제1호 안건으로 2014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 세출 결산 심의 안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음은 제2호 안건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제2호 안건 낭독하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우수단체 지원사업 관련 운영 규정에 단
체 선발, 선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
정 할 것 입니까?

사무처장 지원 기준 말씀이십니까?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지원 기준은 각각 문화원당 한 개 단체씩
선정해서 신청하면 그 중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 단체
면 10개 단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그 사항이 2조의 지원기준 1항에 보시면 이 선정단체는
민속예술제 상위 10개 지역, 대상과 최우수상을 제외한 상위 10개
지역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
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민속예술제 때 대상, 최우수상을 제외한 10개 팀을 선정, 그러나 12등까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의장(회장 염상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서 광명이나 김포, 고양과 양주는 이런 지역은 몇 개 팀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도 예산이 일체 없으니, 원장님들이 각자 적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나만 선정해 우리 쪽에 제출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개 시군 중에서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지 문화원장님들이 정하게 된다면 “손이 안으로 굽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에, 심의위원 한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보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이 선정에 관한 건 말입니다, 민속예술제에서 대상 우수상을 받고, 상 내용이 많잖습니까. 그걸 따져 어디 시장 상까지 하면 10등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정은. 민속예술제에서 이미 수상한 10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그런데 여기 청소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처장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그렇다면 이미 10개가 선정이 된 거고. 그 10개 지역에 300~350 지원한다는 건데, 지원 후 차년도 작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매년 선발한다는 내용인거죠. 매년, 매년 선발하는 방식인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선정한 팀, 내년에 선정한 팀 3년 계속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매년 한 번씩만 교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선정한 팀은 못주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제가 보기에 이 방식은 1년씩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그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선정이 되고 내년에도 선정이 되고. 계속 선정이 되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선정이 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저도 회장님과도 많이 논의드릴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인 점이 있습니다. 동일 작품으로, 예를 들어 광명 액막이 놀이가 있습니다. 액막이 놀이 작품으로 매년 출전하게 되면, 성인이나 청소년부분으로. 그렇다면 올해 대상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도 그 작품으로 민속예술제 출전을 합니다. 액막이 놀이로 3년 동안 출전을 하더라도 10위 안 순위권에 들게 되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년차에 액막이 놀이 같은 작품으로 출전해 수상할 경우 그 작품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3년 안에 최우수상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이 말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한번 선정이 되면...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계속이 아니고, 매년 선정한다는 것이 3년 연속 선정까지 한나라는 것이죠.

양평문화원장(장재찬)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3년까지는 인정이 되고, 이제 네 번째 해 가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의장(회장 염상덕) 이 안을 저와 최처장이 고심 끝에 방향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문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정이 되고, 시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단체는 안됐느니 어쩐느니 하면 일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규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어차피 해마다 선정되는 거니까...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자동으로 한 번씩 한 번씩 가는 거니까. 3년 이라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한 번씩 지원해서 매년, 물론 10등 시상권 안에 들어가는 문화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 개발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같은 작품을 가지고 또 나와서 입선이 되어도 한번의 지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같은 작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지원을 한번으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일 년 단위로 지원한다. 3년까지라는 단서를 없앨까요?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금년에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 돼서 도연합회 예산 중에 사천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지 또 전액 삭감될지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10개 팀을 지원한다는 사항 자체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그러나 어차피 도에서의 지침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 운영규정마저 바뀌어야 하기에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예산이 더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개 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든가 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4백만원도 규정을 짓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래서 1항 세 번째 줄,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나 예산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이 10개 팀은 4백만원씩 지원인데요. 그럼 4천만 원이지요?

다수 350씩 열 개.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위의 1항에서 우선적으로 10개 팀을 지원한다. 고 결정이 되어있으니 3항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만약 한 종목, 한 작품으로 계속 출전했다. 가 가능하다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지난 의정부 청소년민속예술제 당시 00팀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그 출전자들이 심사내용을 가지고 항의하고, 게다가 심사위원 중 한사람이 해당 팀에 “당신들이 2등을 했는데” 라는 정보를 심사위원이 흘렸다고 했었습니다. 그 위원이 누가 흘린 것인지 까지 나올 정도로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사를 하는 문제는 규정에서 대상과 최우수상만이 아니라 10개 조항에 들어가는 중복된 작품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입상을 한번 하면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이듬해 출전하게 되면 10개팀 내에는 선정을 하지 않는다. 출전하는 것을 2번 3번 입선했다고 해서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시상금을 지원 해주는 것은 한 번으로 한다면 각 문화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결국은 또 나눠 먹기 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출품은 했는데, 형편이 없어도 그 지역을 선정 한다면... 나눠 먹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 없애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연천문화원장(이경순) 단체에서 6백만원 조금 되지 않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니 1년 동안 모여 연습하는데 식비로 거의 대부분 지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위에서 10개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무처장 10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10개면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으로 지원해서 솔직한 얘기로, 실지원비가 적을텐데,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4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참여할 팀이 있겠습니까?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참여가 아니고 지방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이 금액은 활동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우리가 6백만원 지원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사실 6백만원 가지고 우리 용인에서도 해봤지만, 천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4백만원으로 줄여서 지원한다? 4백도 힘듭니다. 책도 만들어야하고 여러 비용을 따지면 3백, 3백5십정도. 지원팀 숫자를 줄였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도와 협의를 해서 원장님들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지원단체를 줄이고 지원금을 증액하자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47개 단체를 모두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어렵게 사업비를 살려 냈는데, 10개 단체 이하로 줄이는 것은 어렵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면 추경에서 증액해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최소한 10개 단체는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10개 단체 35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래 봐야.

사무처장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민속예술제 참가시 참가지원금이 보통 성인은 천 몇 백만 원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은 변동 없이 나오게 됩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민속예술제 예산 지원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이 사항에 대해 우리단체에서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내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연습하라,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끊어진다고 얘기하시면... 참으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 점검을 해보니 전에 받던 단체가 유명무실해져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청소년)민속예술제를 하면 대상 최우수상 두 팀씩 나오는데, 매년 두 팀씩 증가되면서 보존을 해주다보니 예산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지원 단체에서도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한 겁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연출을 잘 합니다. 지역에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등재 돼 있는 마을이 있죠.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다 없어진 곳에서 다시 작가가 만들

어서 고증을 받고, 하면서도 최우수상 대통령상도 받았지만 민속에 술제가 이렇게 가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상만 받으면 그 작품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들죠. 사실 액막이를 보니 보성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조인지 우리 광명이 원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출가에 따라 하는 작품이 제작되다 보니까 이 기준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속 보존사업에 대한 운영규정을 말입니다. 문화원을 통해 지역에서 권한을, 사업에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연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회 때죠. 보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백만원 가지고 회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해 단체가 또 다른 단체로 옮겨지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에 문화원에서 정산처리라던지 부가적 업무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그 단체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군청으로 압력을 넣어서 우리는 통장도 넘겨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지금 자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 군에는 매년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매년 출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원 동원하는 사항도 그렇고 재정에서도 그렇고. 작품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참여할 의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을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를 지원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사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출전한 상황을 감안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여유있는 시군에서 새로운 작품, 금액 쥐가면서 좋은 연출가에게 맡겨 좋은 작품 만들어서 출전하는 건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양평부터 내년부터 그만둬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습을 하는데 식사대금이 최하로 잡아도 백~백5십만원 잡아야하는데 2-3번연습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부 새로운 작품 가지고 나오는 데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어서 결국 수상하고. 같은 작품 가지고 억지로 참여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풍족한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기만하면 “아 이런 상황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좀 해주쇼” 부탁을 하면 그 상황에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면 매년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출전하는 큰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금 시상권 안에만 들어가는 거지 그 이외 열악한 재정지역에서는 고생만 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개선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전하는 상황을 고려해주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지금 용인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항 2항에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곳만 반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에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은 삭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삭제가 아니고, 용인이나 타 시군 열악한 지역에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힘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에 같은 작품으로 10등 안에 들었어도 3번은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삭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곳을 제외한 1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상 무슨 상으로 10개가 다 확정 되어 집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평가시 점수에 의해 10등 이내에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산문화원장(임명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상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지역의 문화원에서 발굴 보존하는 지방에 있는 전통 민속예술을 유지해 나가는 조건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은걸 따지고 4백 가지고 되느냐 8백 가지고 되느냐 이걸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49개 단체를 주던 것을 10개를 주는 것만도 사실 지역으로 말하면 적게 주는 건데, 우리가 이 민속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서 금액으로 정해서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항도 한번 받은 단체가 3회 이상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건데, 전부 바뀌는 건 아니기에, 3회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없애게 되면 10등 10등 10등 하다 보면 10등 안에 광

명시가 10번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단체에서 3회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돼야 합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그 지역에 정말 문화적인 가치에 의한 내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사항도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로서 90이 되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한번 출전을 해서 문화유산, 예술, 전통이 되어 줘야겠다.” 해서 그 분들이 나오다 보니 젊은 분들보다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전한 분들 90 연세가 되고 무형문화재로서 마지막 출전으로 경기도 지역에 전통 문화유산을 홍보 하겠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재찬 원장님의 얘기에 공감 합니다. 여주는 87년도에 상을 탄 것 그거 하나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하는 단체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저도 10위에서 한 번 받았으면 못 받은 문화원들도 돌아가면서 받는다 해도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지금 예산이 제대로 설지가 문제입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그것도 확정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받은 지역만 계속 받게 되면 여주 같은 곳은 계속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는 돌아가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좀더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지금 우수전통민속예술보존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오늘 보니 운영위원회에서도 참석 못하신 시군 원장님들이 절반입니다. 이 상황에서 총회안건으로 상정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확정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몇 분 모아 소위원회구성을 해서 총회자료 안을 만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최종 규정(안)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에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 원장님 말씀대로 한 세네 분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토록 하고 총회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위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 내용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회장님 47개 우주전통보존사업을 삭감하면서 당근으로 10개정도 지원해주겠다 한 건데 실질적으로 길게 가 봐야 이년 삼년 이상을 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전통 민속 예술 보존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 지속적인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31개 시군 문화원장님들이 경기도에, 각 지역구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단, 요청을 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전통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이렇게 가다보면 사장되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정을 하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여기 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소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 사항은 한두 시간으로는 끝나지 않기에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처럼 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 진지하게 하루 종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규정을 의결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한 세분이나 다섯 분 정도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구성을 하고 일정을 다시 잡고 고심을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지요.

광명문화원장(이영희) 회장님께 위임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추후에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네 동의하겠습니다.

<중략>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금년도에 정기총회는 1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임시총회도 있을 예정으로 보여서 제가 생각하기엔, 회장님이 임기가 4월인가요? 라고 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제가 정상종 회장의 잔여임기를 지금 한 1년 8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4일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저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31개 문화원 원장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뜻이 있는 분이 계시면 잔여임기를 마치면 다른 분이 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금년 3월, 그리고 사무처장 예산안을 보면 도회장회비, 운영위원회회비가 있는데, 부회장도 관두신분도 있지요?

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이제 선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회비 납부를 백5십, 4백5십씩 했던 말입니다. 현재로 총회에서 아니 회장님이 우선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지금 착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예를 들어서 지금 회장님이 금년 임기가 3월까지인데 회비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3월 달까지라면 3월 달에 그만하시고 다른 분이 회장을 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비는?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정상중 회장의 잔여임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모두가 종료가 됩니다. 3월 14일 모두가 임기 종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을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한 달 전에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전년대비 2015년도 예산 이 부분은 이만구 원장님이 재임하는 달까지 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회장회비의 결손을 이만구원장님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부회장 회비가 없게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2015년도에 대한 예산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단에 대한 문제는 잠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그래도 2015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지금 회장회비가 일전에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천2백입니다. 지금은 운영이 전보다는 나아졌으니 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오산문화원장(임명재)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년 결손금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사무처장에게 묻습니다. 만약 2백만원을 줄인다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사무실을 운영을 못해서 직원들 문제도 있으니 그랬던 것이고 조정을 해도 되는지...

의장(회장 염상덕)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오히려 일반 회원들이나 원장님, 운영위원, 부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을 조금씩 인상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별 문제 없으세요? 그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제2안건인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제3호 안건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3호 안건 낭독하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이 경우 서울 이경동회장님이 저한테 상의를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선거규정이 잘못 된 것이었습니다. 상위법에 한사람을 뽑는데 한사람만 등록하게 되면 그건 확정 당선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신임투표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이 한국문화원연합회라고 상위법에도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원 같은 경우가 의외로 소송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경동회장이 되면, 이 정관 규정을 그쪽에다 의뢰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등록하면 당선이 되는 건데 신임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지금 얘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요?

용인문화원장(김장호) 거기는 서울문화원연합회일겁니다. 문화원과는 다르죠.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지방에도. 투표를 하잖아요. 지방문화원도.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용인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단일로 되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그동안 도연합회가 잘못 했었네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그렇게 하니깐 똑같이 따라 가는데. 도연합회는 혼

자 나와도 투표를 했는데 말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먼저 정상종씨하고 한춘섭씨 하고 경선 했을 때 한춘섭씨가 포기했었죠. 그런데도 신임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오산문화원장(임명재) 의장(회장 염상덕)님도 투표를 했습니다. 추대 하자 왜 신임투표를 하느냐 이런 얘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연합회가 한 때 광명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투표해서 2~3명 나오면 누가했는지 다 압니다. 그 많은 세월이 찝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안건은 잘 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3호 안건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4호 안건으로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제4호 안건 낭독하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제가 회의 진행에서 자료 안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임원선임의 건은 총회에는 들어가도, 오늘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이요, 임원 선임의 건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으로 사항을 바꿔주시고 총회에 임원선임의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거관리위원 다섯 분 선임을 해야 합니

다.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의 건. 세분은 전에 해봤는데, 다섯 분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용인원장님, 부천원장님, 안산원장님, 고
양문화원장(방규동)님, 양평문화원장(장재찬)님 이상 다섯 분이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아니 전 안 됩니다. 거리가 아니라 3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전에 끝나는 겁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장원장님은 거리도 있
고, 연세도 있으시니 용인원장님, 부천원장님, 안산 원장님, 고양
문화원장(방규동)님, 여주문화원장(김문영)님이 어떠실까요?

고양문화원장(방규동) 저는 워낙에 바빠서 힘듭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인데
겸업이 됩니까?

용인문화원장(김장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이요? 지
역에선 선거관리위원이지 않습니까.

오산문화원장(임명재) 저도 3월 까지입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정말 바쁘시다면 빼드려야 합니다.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 번할지 세 번할지는 진행 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은 용인 김장호 원장님, 부천 박형재 원장님, 안산 김봉식 원장님, 여주 김문영 원장님, 오산 임명재 원장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제5호 안건으로 정기총회 개최의 건으로 안건은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임원선임 건,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지만, 확정지어주시면 정기총회는 2월 10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이의가 없으시면 정기총회 일정을 2월 10일로 정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제 5호 안건 정기총회 안건이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경기도문화원한마당 페스티벌을 어느 분이 기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석을 할 수 없다면 참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

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 5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7시에 끝이 나는데, 양평 같은 곳은 버스로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녁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남자 분들이 아니라 여자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수원에서 개최하면 그 근교에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장거리 거주자는 애로가 많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차후에 남경필 지사님도 참석하신다 했고 도의회의장(회장 염상덕)님도 참석하신다 했는데 마침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가 4시 반에서 5시정도면 끝난다 해서 참석까지 해준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질의를 자꾸 하다 보니 참석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참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조정을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먼데에 있는 사람 불러서 도중에 가게 만들고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참여 할 사람들은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알겠습니다.

오산문화원장(임명재) 모든 지자체 문화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예산 좀 타다 쓰고자 하는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이상으로 2015년 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4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11:00 ~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참석자 : 재적 31명 중 30명 참석

(수원, 부천, 의정부, 안산, 화성, 연천, 용인, 시흥, 광명, 양평, 안성, 여주, 평택, 파주, 김포, 가평, 구리, 광주,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안양, 양주, 오산, 의왕, 이천, 하남)

의장(회장 염상덕) 오늘은 상당히 상쾌한 기후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4억 8천 예산을 예상했는데, 예산이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문광위라던지, 예결위원이라던지 소속 원장님들께서는 다 전화를 하셨을 겁니다. 문광위원장님도 부천사람이고, 예결위원장님도 부천사람이고, 용인원장님,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도 사위가 도의원이죠. 예결위원. 이천, 평택, 안성, 화성 등 해서 원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다시 4억 8천으로 세워졌습니다. 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페스티벌 31행사를 했었죠. 그 행사에 참여해주신 원장님들께서는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다 해주셔서 기분 좋았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난 해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과 지방문화원 총람발간을 신규사업으로 도에 제출했습니다. 31개 문화원 현황, 조직, 사업 분석, 점검도 하고, 하나로 묶어 책자를 만

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남경필도지사 공약사업인 따복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들께서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과 다름없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를 이 정도로 하고, 총회 부의안건으로는 201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심의확정 건,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네. 201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1일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고, 2015년도 예산(안)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같은 날 적극 검토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의왕문화원장(박용일) 81페이지 과년도 회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쉬이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년도 총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년도 회비가 미수회비가 되는 겁니까? 미납회비가 되는 겁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미납이 됩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연천이 들어가 있어서 껄끄럽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문화원장(박용일) 저는 감사님께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의장(회장 염상덕)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전년도 총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회장 염상덕)님께서도 충분히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지금 연천원장님도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회비를 기존에 연천문화원이 사고가 있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의왕문화원장(박용일) 의장(회장 염상덕)님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느 문화원이든 회비는 다 내는 건데, 못내는 것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님이 감사를 하시면 다만 이런 사항은 좀 지적을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총회 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수회비 미납회비라고 집행부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곤란하지 않는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일단 안양문화원은 2012~14년도 회비는 완납하였고, 연천 문화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도연합회 회비뿐만 아니라 중앙 연합회 회비도 미납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연합회 회비부터 해결하고, 도연합회 회비를 해결하겠다. 답을 받은 상황에서 도연합회 회비부터 해결을 해 달라 하기가 곤란해서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제가 양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로서가 아니라 연천문화원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까지 저희가 7년 동안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소송 사건이 7년 동안 진행되는 바람에 회비를 경기도, 중앙 연합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당선이 됐을 때도, 이미 군에서는 3월 달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2010년도도 저는 정관개정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미납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내겠다고 그때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내기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4년차인데,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중앙연합회비는 올해 다 완납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해서 안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문화원장(박용일)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문화원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천문화원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만나는 시점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연천원장님 말씀도 올해는 연합회 회비를 내고 금년에 완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없으시면 제1호 안건인 회비 미납된 사항은 납부토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얘기하는 건은 더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 사무처장이 설명하는 가운데 세입 예산에서 1,2월 달 경상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반관리비로 도비 지원하는 것도 1,2월 달에 교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도비지원으로 1천3백만원이 책정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2월 2십 몇 일에 보통

이뤄집니다. 선정이 될 경우 3월말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경기도연합회가 예산상황이 좋아서 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연합회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비 국비나 이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부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잔액이 있으면 1원이라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체 예산 가지고 이월금을 5~6백만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원장님들이 각 지역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월 달에 심사해 3월 달에 교부한다. 그러면 1,2월 달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수도료, 전기료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개정시키고 심의위원회를 일찍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준다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이월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면 용인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내려오는 게 연합회만 국한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단체를 다 취합하고서 2월 중순 지나서 말경 가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해서 바로 줘야 2월말이고, 아니면 3월 초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문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한 5백 여 만원씩 내줘야 회비 내고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해주고 하는데, 십시일반으로 원장님들이 회비를 올려서 도와주시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긴데, 정상종씨 있을 때부터 나왔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를 드렸는데, 잠시 후 그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일반 회원은 60만원, 복지기금 30만원은 똑같은 것이고,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은 80만원, 부회장님은 150만원 이렇게 내고 계시고, 3천4백 이정도 됩니다.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올려주시면 한 5백여만원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만이라도 해주시면 아쉬운 데로 제가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운영위원을 맡은 원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운영위원회회비하고 일반회원 회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게, 부회장님은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회원회비를 운영위원회회에 맞춰도 한 16개 문화원 3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원회비를 없애고 운영위원 회비로 바꾸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저도 이 회장직을 제 작년에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반회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처음 정할 때 어떤 뜻에서 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감을 좀 더 높이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맞습니다. 운영위원인데, 일반회원보다는 더 내셔야하는 것 같습니다.

용인문화원장(김장호)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왕 기타사 안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결정짓는 자리에서 굳이 도연합회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1,2월에 한 6백여 만원 모자란 분위기란 말입니다. 금년예산은 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기왕 나온 김에 운영위원도 20만원 증액하고 일반회원도 20만원 증액해서, 부회장들이 150만원 내고 그러는데, 부회장만 증액하자는 게 제가 부회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위원 100만원, 일반회원 80만원, 물론 예민한 문제로 각 문화원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지회가 도청과의 역할론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6백만원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가시면 어떠신가 합니다. 금년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 되는 거고, 어려우시지만, 각 원장님들이 승인해주시는 걸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의장(회장 염상덕)님, 김장호 부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현재 증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현재 1,2월에 경상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제가 작년 3월 10일에 취임해서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회가 일선 시군문화원보다 1년 예산만도 못한다는 게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예산지원편성 하는데 문화원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뭐 다른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에 고맙습니다. 용인 김장호 원장님께서 문화원별로 일반회원, 운영위원, 부회장 할 것 없이 20만원씩 정도라도 일괄 그럼 한 6백만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금년 예산편성에 기타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원장님들 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동의함과 동시에 각 문화원도 어렵긴 하지만, 회의 끝나고 1월중에 문화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면, 형편이 되는 원장님들은 다 회비를 송금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입니다. 연말 다 돼서 회비를 내주시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인데, 기왕이면 정말 3,4월 안에... 1,2월 달은 제가 한 5백여만원을 넣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경상비 쓰는 게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천문화원장님 말씀대로 한 3,4월안에 납부해 주시면 배불리는 못쓰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먼저 오용원회장님이 연합회장으로 있을 때 제가 도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인건비항목이 없는 단체가 어딴느냐? 인건비 항목을 세워주지 않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문광부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도 문광부에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단체라고 있는데 31개 시군문화원을 대변도한다고 하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입장인데, 연합회에서 인건비 항목을 세울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얘기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하니, 대답을 철석같이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도 규정을 못 지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연합회 맡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예산에서 인건비 항목 예를 들어서 경상비 지원으로 각 31개 문화원에서 20만원씩 증액해서 내주시는 걸로 수정해서 제2호 안건인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수정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제3호 안건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원선거 관리 개정안 심의의결권을 상정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23조 3항이 4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이상 없으신가요? 원안대로 개정하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4호 안건으로 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럼 지금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임원선임의 건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용인문화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선거관리위원장 용인 김장호원장입니다. 제가 부회장을 하다 보니, 제9대 도연합회장 선출하는 영광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 우리5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편하게 임했습니다. 도전자가 없으셔서 이렇게 한분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원장님들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 순서 진행에 의해서 제4호 의안 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먼저 선거관리위원분들이 두 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부천 박형재 원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김봉식 원장님, 오산 임명재 원장님, 여주 김문영 원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다 같이 수고를 해주셨

습니다. (모두 박수) 고맙습니다. 서두에 제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경과보고를 사무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보고 드리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사무처장 경과보고를 들으신 내용대로 지난29일 염상덕 회장님 단일로 선거관리 회의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해 확정공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소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에 규칙을 보게 되면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단독 후보등록일 때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결정 공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 오늘 된 건 맞습니다. 23조 3항이 오늘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공고를 하고 등록을 마치는 시점의 진행과정이 오늘 이전에 일어난 행위자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항 의사진행발언에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 주시면 그때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소견을 듣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소견서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회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네 좋습니다. 정상종지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8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우리 염상덕 회장이 대거 없이 잘 해주셨고, 경기도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억 5천에서 6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 받으셨고, 그 공을 인정받아 추대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전에 시흥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의견 내주신 걸로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고맙습니다. (모두 박수) 그러면 당선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선인은 염상덕 수원원장님 단독 후보로 출마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흥문화원장님의 구두 만장일치 의사발언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당선증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증 전달)

(모두 박수)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다음은 임원선임에 관한 것 중에 감사, 아, 당선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소감 스피치를 우리 염상덕 회장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당선인(수원문화원장 염상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

우선 저보다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방규동 고양문화원장(방규동)님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30명이 다 참석해주시고, 단독후보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정상종회장 잔여임기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 뜻을 많이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역에서 바쁘게 일하시지만 우리 수원이 아시다시피 백2십만이 넘어가는 도시고 그리고 저희 문화원이 3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 15명이 일을 했습니다. 수원시사 편찬이 끝나고 금년에는 20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오면 수원이... 문화원에 가면 도연합회에서 부르고... 제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이 도연합회 사무실에서 가까우니 자신의 임기 한번은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원장님들의 뜻에 다 동의해서 제가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과 다름없이 연합회를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잔여임기 동안에는 각 문화원들은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임기를 맡았으니 제가 한번 각 문화원에 원장님들 얼굴도 뵈 겸 직원들 얼굴도 볼 겸, 모든 사업을 듣고 배울 점,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도와줄게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모아서, 총람 책을 만드는데, 그걸 엮기 위해서라도 각 문화원에 다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더욱이 고마운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문화원당 회비를 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문화원에 부담이 되는데도 도와주신다 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

이 협조하고 도와주신다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하면 문화원간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합이 잘 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연합회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원장님들 저를 추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각 문화원의 발전과 또 여러분의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다음은 8대 원장님 임기와 더불어서 감사님이 물론 두 분이였다가, 지금 연천 이경순 원장님 한 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님 두 분 임기가 만료 되고,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만료가 되고, 부회장도 같은 임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위원과 부회장 선임에 대한 것은 다음 항에서 위임 사항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감사만은 총회에서 구두요청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선임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전 등록 예고를 선관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장(회장 염상덕)소에서 구두요청으로 해서 선착순 두 분을 받고 또 세 분, 네 분되면 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 자진해서 하시겠다는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면 다른 분이 추천하는 것보다 먼저 받겠습니다. 자진해서 내가 하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제가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의회경력이 다분하시고 이

의 없으시죠? 또 본인이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

모두 동의합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시흥 정원철원장님 추천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추천을 해주셨는데, 시흥 정원철원장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시흥, 성남문화원장(김대진)님 두 분이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감사소견을 1분 스피치라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함께 해 주신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십여년간 의정경험과 의원을 하기 전에는 농협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좀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자진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말을 외람되게 드렸고,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이렇게 약한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경기도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이 올라가는데 동

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모두 박수)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정원철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추천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문화원장님들 모두는 온몸을 바쳐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서른한 분이 모인 곳에서 감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열심히 할 것이며, 우리 원장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두 분께 열심히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명예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박수) 사실 회의진행순서상에는 없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다음은 임원선임으로, 운영위원과 부회장은 우리 새로 되신 염상덕 회장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호명하기에는 쪼끄럽기 때문에 새로 되신 감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위임을 해드리는데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두 동의하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네, 고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동의는 하는데요, 운영위원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네 다음번에 세분이 조출
히 모이실 때 의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회장과 운영위원에 대
한 선임은 새로 되신 회장님께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
으로 임원선임에 관한 조항에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용인문화원장 김장호) 고맙습니다. (모두 박수)

의장(회장 염상덕)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모두 박수) 김장호 선거
관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는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짜고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웃음)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총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이 되겠는데요, 기타 안건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장시간동안의 총회가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제가 다시 연임을 했으니까, 아무
때라도 열심히 할 테니 원장님들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얼
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24차 정기총회는 이것으
로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일 시 : 2015년 3월 17일 11:00~12:40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참석자 : 재적 15명 중 11명 참석

(부천, 의정부, 시흥, 성남, 양평, 고양, 여주, 평택, 안성, 파주), 위임 3명(안산, 연천, 광명), 불참 1명(김포)

의장(회장 염상덕) 오늘 먼 곳에서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 한파가 몰아치고 감기도 걸리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제 부터 날씨가 전형적인 봄 날씨로, 오히려 더 여름 날씨 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지난 2월 10일 총회에서 연합회장 선출도 있었고, 부회장님, 운영위원, 감사님들도 선출했고, 운영위원님들도 위임을 해주셔서 같이 모였습니다. 기존에 했던 운영위원님들 그대로 하고 새로 되는 분들은 임기순서에 의해서 모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이 4분정도 되는데 잘 협조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산 임명재 원장님이 몇 일 전까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하지 못해 후임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운영위원도 못하게 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하준 김포원장님이 순서가 돼서 김포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승낙을 해주시고, 오늘도 참석을 해주시려 했는데 아드님이 병환중으로 못 오셨습니다. 김봉식 원장님도, 부회장님으로 모셨는데, 책임을 맡고 계셔서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순 연천원장님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고, 광명 원장님도 이사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광명, 연천, 안산원장님이 위임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취임하는 분, 부천, 의정부, 양평 원장님도 재임 해주셨고, 작년에 하신 분들도 몇 분계시고,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용인 원장님 이취임식은 오후 4시이고, 과천은 24일 이취임 행사가 있고, 오산도 31일에 총회 하면서 바로 이취임식입니다. 금년에 원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다만 오산 임명재 원장님이 경기도 민속 예술제를 오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잘 맞질 않는지 그래서 다른 분으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새로 맡을 분이 민속경연 대회도 잘 치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밖에도 금년도 시낭송의 밤을 고양에서 해볼까 파주에서도 해볼까 하다가 고양은 꽃박람회 치여서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아 파주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을 작년에 2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주고 그래서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홍기현 이사장도 만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도 만나 얘기를 또 했는데, 3천만 원이라도 해주면 저희 원장님들도 모시고 자부담을 해야겠지만요. 사무국장들이 작년에 북해도에 다녀왔는데 사무국장들이 원장님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많으면 직원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한번 추진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의 변동으로 추경과 공지사항 정도로 오늘 운영 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인사 겸 해서 안내말씀 드렸고, 다음은 위임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무처장이 순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염상덕 회장님이 제 9대 연임이신 관계로 별도로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취임패 수여를 먼저 하고 운영위원님들 선임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패 수여가 있습니다.

(취임패 수여)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안건심의회가 있습니다. 1호 안건으로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상정합니다.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지난 2월 10일 회의에서 원장님들께서 회의비를 협조해주셔서 한 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탁금 500만원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약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4백여 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출 내역에서 이상한부분이 있거나 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변경을 하면서 관리운영기준에 수용비를 보면 작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신문구독료하고 야근 식대로 편성하셨는데 신문구독료는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야근식대는 수용비에서 쓰기는 좀 그렇

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넣는다던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용비는 물품을 산다던지, 식대로 넣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저희도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복리후생비로 만들어 2백만원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처장 급여가 3천6백밖에 안 됩니까?

사무처장 퇴직금까지 4천만원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과장은?

사무처장 팀장은 사업비로 급여를 총당합니다 2월달엔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2월달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3월 달 인건비를 빼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성남문화원장(김대진)님이 처음 운영위원회 참석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건비 항목이 없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앉아 있을 때 인건비항목이 내려올 수 있게 문광부에 요청했으나 문광부에서 단체들이 많아 문화원만 특별히 해줄 수가 없어서 못해줬던 겁니다. 도에서는 인건비 항목 세우라는 공문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다시 얘기는 해보겠지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에서 인건비 항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장(회장 염상덕) 그렇습니다. 급여는 경기도에서 줘야하고 상여금도 없습니다. 이걸 도지사에게 얘기해서 확실히 해줘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참고로 서울, 대전 제가 2군데만 아는데 그곳은 운영비를 4~5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3백, 15백으로 2백만원 올려서 해준 사항입니다. 지난 문화의전당 이사회 때 점심대접을 해서 거기서 쪽지를 써서 지사님을 뵙고 “해 주세요.” 하니 “우선 제가 바쁘니 기획실장에게 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획실장을 처음보기 때문에 선뜻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실장과 과장, 두 사람이 있는데서 대충은 얘기해줬습니다. 이번에 인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인도를 같이 가면 거기서 얘기합시다 했는데 제가 가정사가 있어서 가질 못했습니다.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아마 이경동회장에게 전부터 얘기 했었으니까 잘 될 걸로 믿고 인건비 얘기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사업비가, 3월 말경이나 4월초에 교부가 됩니다. 사업비에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경상비 만원에 대한 걸 분할해 올려서 승인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운영위원들만이라도 경기도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어디고,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인지 정상적으로 경상운영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항목은 행사비나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데 인건비로 고친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고치는 것이 돼야합니다. 그래야 1월 달 부터 보조금도 나오고 인건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다보니 상여금도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군요.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지방문화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연합회만 그런 상황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도는 왜 안 되나 이 문제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경기도 예총이나 다 같습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마찬가지로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 도청에 몇 분만 같이 가서서 건의하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시흥문화원장(정원철) 몇 분 모시는 걸 이 자리에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행하는 건 항상 회장님이나 사무처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 보다는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안정화 추진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몇 사람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도위원, 도지사를 만나고, 더 위에 문광부도 들어가는 멤버를, 재임기간 중에는 어쨌든 이 문제는 종결을 지어야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부원장님과 감사님들, 해주시겠습니까?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일정을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없으신가요?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세입부분에서 2백만원 증액된 시점이 총회한 이후에 증액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3월 초에 된 사항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 1호 안건은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락>

의장(회장 염상덕)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문화원 동향을 보고 드렸어야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문화원 역량 강화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해야 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제주도가서 연수하고 오고 했지만, 향후 실무적인

회계업무나 기획업무라든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강사진을 준비해봐라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낭송의 밤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선진지역국제교류네트워크 이 사업은 재단 경영 본부장이 선정이 되어야 우리와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산은 조율 해보고 빨리 내려 보내주면 6월 안이라도 덜 바쁜 시기에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키나와 일대 라든지 중국 하이난성 및 마카오 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좋은 곳으로 안을 잡아주시면 추진해보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일본은 가지 맙시다. 문화원연합회에서 간다는 건 좀.

의장(회장 염상덕) 근데 예산관계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곳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문화원 총람발간사업은 각 문화원 현황도 파악할 겸 해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바로 어제 사무국장 회의를 김포에서 했었는데 그곳에서 각 문화원 총회 회의 자료를 가져와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한 10여 군데 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운영위원님들도 안보내신 분들도 보낼 수 있게끔 사무국장들에게 지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기타 사항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경기도에 문화원이 31개 문화원이 있죠. 그중에 운영위원분들이 15명이라고. 다른데 보면 31명중에 15명이

꼭 필요한 건가 과다편성이 아닌가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감사 빼고 13명인데 절 포함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운영위원이 아니면 1년에 한번 뽑는데, 31개 시군에 문화원장님들이 계시면서 처음 당선되시고 하시면, 티오를 13명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사회로 해서 전원이 지금 운영위원이 2달에 한번 만나나요?

사무처장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3개월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면 굳이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안성문화원장(양장평) 남부쪽 서부남부 갈라서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이라 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두 분 의견 모두 좋은 의견인데 친목회 비슷하게 주최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불참하는 위원님들 숫자를 보면 22분이나 21명, 20명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비슷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하는 면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광주·성남·하남은 작년 유네스코 남한

산성 세계 문화유산 운영위원을 구성했는데, 운영위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먼저 총회 때도 의견을 드리려 했는데, 문화원이 셋인데 운영위원은 저 하나라고. 그래서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은 많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31명인데 15이면 반인데 이걸 누구누구를 운영위원으로, 일반회원으로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뜻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안성원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은 잘 모인다는데, 남부 쪽은 모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통합이라고 해서 하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리해서 북부만 모여서 결국에는 북부쪽 구리 남양주가평은 여긴 인원이 얼마 없다보니 한 분이 주선해서 처음에 통합을 제안한 게 잘못입니다. 통합이 되어도 계속해서 나가야하는데 어느 지역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통합이 무색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곁들여서 문화원장님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연합회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하는 게 뻘한 것이라 만만치 않고,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 말씀대로 다만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퇴직한 원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죠. 안성원장님하고 이천, 화성, 광주원장님이 지난번에 모이는데 세분이 모였었습니다. 광주 이천 안성 이분들이 식사를 했죠. 몇 번 모임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못했었습니다. 오늘 각 지역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

지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데
원장님들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의 구상은 어떨까요?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전직원장님들말입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선거했던 분들도 계시고 꺾고러울 것 같
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 분들도 그러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용인지역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 번씩만 하고 그만 둔다고 들었습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현 원장님들이 자
주 모여서 친목도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개선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상 하반기 총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볼까
요? 1회는 임시총회, 또 다른 1회는 정기총회로 말입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운영위원은 네 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경비도 들어가는 문제이니 네 번 중 두 번은 전부 모이
는 것으로 하고, 두 번은 운영위원만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1년에 2번이라 해도 두 번 중에 한 번을 빠지게 되면 일 년에 한번 참석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경비 얘기하셨는데, 사실 경비는 우리문화원장님들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밥 한 끼 정도 대접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위가 1.2.3.4번 이냐지, 이걸 못해서 안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면 제가 고양 꽃 박람회시에 초청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원원장님들이 면도 안서기 때문에 이 모임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참고로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올해 10월1일부터 4일까지 한국민속예술제가 평택에서 개최됩니다.

파주문화원장(우관제) 예술제때는 지금 하신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해외연수 국내연수 등 자주 만나야 친목이 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에서 직원, 국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모임도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모임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알아야할 부문에 유능한 강사분을 모셔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연수 겸 해서 듣는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연수나 직원연수의 경우에도 원장님들

4년을 마치고, 재임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문화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1시간정도 강연을 통해 문화원장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5년도 임시총회

○ 일 시 : 2015년 10월 1일(목) 14시

○ 장 소 : 이천시청 대회의실

○ 참석자 : 재적 31명 중 23명 참석

(수원, 부천, 의정부, 안산, 시흥, 성남, 광명, 양평, 김포, 구리, 여주, 평택, 파주, 가평, 과천, 군포, 광주, 남양주, 이천, 포천, 하남, 화성), 위임 1명(동두천)

의장(회장 겸상덕)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셨는데,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드셨는데요. 정말 먼 길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식만 준비를 했었는데, 일전에 원장님들이 “상반기 6월 달에 회의를 하게 되면 1년 만에 뵙게 되니, 하반기에도 총회를 합시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변동사항은 없겠지만 잠시 후에 다시 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래의 유물전을 준비하는데, 10월 2일 날 내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2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경동회장님이 당겨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있다 보니 당겨 준비하느라 12시 넘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원장님과 저녁식사까지 하고 8시 넘어 헤어졌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더 준비하고 또 보강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보시더라도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면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5년도 경기도민속경연대회를 오산에서 했었습니다. 오산에서 했는데, 제가 연합회장이고 대회장이다 보니 저는 어찌되었건 각 문화원에서 대상이 나오고 최우수상이 나오고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수원팀에게 대상을 주셔서 제가 참 원장님들 뵙기가 쑥스럽고 심사위원들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처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결과보고는 기이 각문화원에 보내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원장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내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얘기를 했는데, 실버문화축제가 남산한옥마을에서 있습니다. 여러 원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주십사, 연합회에서도 그랬고, 서울과 제일 가까운 곳이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내일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 평택원장님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민속예술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일부터 9일까지 울산에서 지방문화원장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겹쳐서 가지는 못하지만, 8일 9일 오셔서 10일에도 가서 평택원장님 위안을 해 주실 겸 방문해서 참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연합회에서 보면 각 문화원에서 메르스 사건 때문에 행사가 전부 다 하반기에 몰리다보니 굉장히 바쁩니다. 원장님들 무보수 봉사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문화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인사말을 대신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박수) 다음은 총회의안 2015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안과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개최지 선정의 건 외 기타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의 추경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저희가 안건 심의하기 전에 신임위원장님 식사시간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거기에 참석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봉우 의왕문화원장님 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용일원장님이 2011년부터 지난 10일가요? 임기만료가 되어서...두 분이 다 겸손하셔가지고 뭐 감사패니 꽃다발도 마다하시고 조출하게 한다 그러나 의왕시장님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최처장 투입을 해서 이취임식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봉우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인사 좀 드리실까요?

의왕문화원장(한봉우) 소개받은 의왕문화원 한봉우입니다. (박수) 사실 제가 문화원장을 꿈도 꾀보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흘러가 맡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오셨는데 다들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우왕좌왕하다보니 오신 손님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았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니까요, 원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희정 염상덕)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봉우 원장님은 교직에서 42년간 봉직을 하시고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중략>

의장(최장 명삼덕) 원장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3천 2백만원으로 작년도 실버 축제시에 저희가 원장님들께 버스비며 식비로 지원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을 광주에서 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지원은 못해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참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연수 건은 재단지원 금액으로 작년도 2천5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과 사무국장들이 별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무국장들이 양보를 해줘 명년은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사항입니다. 금년은 4천만원 예산을 올렸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재단 대표나 홍이사장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된다고 하고, 밑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예산이 4천에서 2천 5백, 1천 5백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혹시라도 세출계는 누락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세입계와 같은 610,155,498원이 되겠습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해외연수 4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삭감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애초에 재단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장단, 국장단 연수를 진행 했었는데, 4천만원을 신청하면서 직원들까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 양해 좀 해달라 하여서 국장이 양보를 하고 직원이 처음으로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기동의 했던 사업비입니다. 얘기 나왔으니 이번에도 11월중으로 진행되는데 부부동반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셔야 같이 화합하는 의미가 있으니,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안에 대해서 이상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으로 2016년도 내년사업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개최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설명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15차,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가 안산 김봉식원장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전에 1박2일 진행했었던 사항을 당일진행으로 하니 문화원장님들도 휴가분한 맘으로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잘 치뤘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소가 미정으로 강당이나 식사장소가 가깝게 있는 곳, 각 문화

원장님 당일에 이동하기 좋은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에서 했으니, 북부 쪽에서 할 만한 데 없습니까? 또 14년에 가
평에서 했으니, 동부권에서 없습니까? 여주문화원장님 할 만한 데
없습니까?

사무처장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당과 강의실만 있으면 됩니
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교통편이, 식당
도 같이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금년에 한번 해주시죠.

사무처장 일정은 확정지어져 공지가 되었습니다, 12월 18일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예산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케줄이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작년에 의정부 조수기 원장님이 관중
동원 등 신경써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금년엔 성인부로, 내년도는 청소년 민속예술제입니다. 그런데 청소

년예술제 할 만한 곳 있을까요? 원장님들 계실 때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실내체육관만 있으면 됩니까?

사무처장 청소년은 실내체육관만 있으면 됩니다. 성인대회는 규모가 크고, 항상 경합이 있습니다. 청소년 치루시고, 성인대회를 치루시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부천문화원 청사를 엄청 크게 짓습니다. 12월 개관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도 있고 한데,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부회장님이 한번하시죠.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부천에서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페스티벌 31인데, 금년에 광주 박기준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강당, 소강당, 전시실의 시설만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포천문화원장(망운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이 내년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행사를 준비하고 축제답게 해보자 해서 문화원연합회 임시총회에 가면 의사를 타진해 와라, 포천

에서 정성껏 준비할 테니, 페스티벌의 기회를 포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임원진의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최장 염상덕) 고맙습니다. (전원박수) 그 다음에는 생활문화공동체 <미래유물전>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화성에서 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다른데 있으신가요?

모두 화성이요.

의장(최장 염상덕)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여주에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문화가족 합동연수도, 강당하고 식사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들어서 진행 하는건데, 지역에서 강당과 식사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용인원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용인문화원장(조길생)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의장(최장 염상덕) 군포원장님은 어떠십니까?

군포문화원장(박계일) 어렵습니다.

광명문화원장(이명희) 성남에서 하세요.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성남은 내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구리원장님 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여간 바쁘셔야
죠.

구리문화원장(김문경) 내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럼 광명원장님은 어떠십니까?

광명문화원장(이영희) 200~300명이 먹는 식당이 없습니다. 광명
에는. 탐나는데 없어요. 진짜.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저는 양평문화원장(장재찬)님께 양해를
구하고, 양평에서 장소를 알아보셔하는건 어떠실까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내년도 사업입니다. 12월 초입니다.

사무처장 내년도 11월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하루? 당일치기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럼 가능한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낭송의 밤을 파주에서
합니다. 파주 우관제원장님이 이번 파주에서 을곡문화제 행사가 있
어서 겹쳐져 진행하는데, 사람동원이 많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저
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참

석해주시고, 내년도에 시낭송의 밤 진행하는데, 저희가 광주에서 몇 번했죠? 수원에서도 하고, 이번에 파주에서 하는데, 이 행사는 밤에 하니 운치 있고 괜찮습니다. 운치 있는곳 있으면 원장님들 말씀 좀 해주시죠? 김포원장님도 임진각 있는데 운치 있고 어떠실까요?

김포문화원장(이하준) 파주와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양주문화원장(이보궁) 내년 몇 월에 진행합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남양주는 어떠세요?

남양주문화원장(이보궁) 남양주는 다산생가가 있고, 다산문화제가 가장 큰 문화축제입니다. 내년이 30주년 행사로 해마다 10월에 다산문화제를 하다가 슬로라이프대회 때문에 올해는 얼마 전 9월에 앞당겨 했습니다. 내년도는 시와 시기를 조율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산문화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하루죠? 저녁시간인가요? 그럼 문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진행해도 될 것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고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금년도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는 여주에서, (모두 동의하다) 내년도에 청소년민속예술제 부천에서 하는데 (모두 동의하다), 페스티벌31 포천에서 자원해주셨으니까, 남양주에서 해주시는 걸로 정하고, 또 미래유물전도 화성원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까, 내년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양평원장님 좀 수고 부탁드립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연수원이 많지 않은데(웃음)

의장(회장 염삼덕) 그리고 시낭송의 밤은 남양주 원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호 안건이 대해서 5~6가지인데, 이의 없으시죠? 2016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개최지 선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회장 염삼덕) 다음은 연합회 사업현황을 사무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보고 드리다.

의장(회장 염삼덕)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간단히 세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가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는데, 사무국장, 직원들도 교육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받을 때 보면 오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2회의 연수이니 많이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 받아도 몇 일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연합회에서 했는데,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전국 문화원 직원 교육을 시켜 달라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교육은 원장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기는 하나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시낭송의 밤을 파주에서 진행 하는데 문화제가 있어서 우원장님께서서는 사람 많을 꺼다 했는데, 밤이니까

북부권에서 파주, 의정부 가까운데서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페스티벌31이 24일 광주에서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었죠. 수원에서 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 원장님들께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낮에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 파주에서 같이 참여가 좀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가까운 곳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 해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남으니 “도와달라” 이번에 “문화원 연합회에 1억원 줄 테니까 해 달라??” 원장님들께도 신청해 달라 부탁한 것도 있고 신청하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몇일 남지 않은 사항인데, 선심 쓰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한심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원장님들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사업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타 사항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천원장님 참석해 주신 겸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문화원장(조영호)

인사말씀은 개회식에서 하고, 원장님들 점심에 이천쌀밥을 드셨으니, 쌀밥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보물이 있는데, 이번 달 20일서부터 25일까지 쌀 문화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큰 타이틀은 즐거운 만남 행복한 나눔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이때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기계떡, 기계떡을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천명이 밥을 해서 2천원씩 받고, 그 자리에서 비벼먹는 그런 행사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때 오시면 그 현장에서 햅쌀을 시중보다 싸게 팝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민속예술제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천이 받게 된 게 고증을 했습니다. 1921년도 동아일보에 그때 당시 신문에 난 게 있는데 1921년 이천에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다리기를 한 사람이 6천명이 줄다리기를 했고, 관람객이 3만명 이었다. 그런데 그때 압사된 사람이 4명, 19명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길이가 양쪽이 각70미터, 줄의 두께가 60센치. 그런 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줄다리기를 한 마을이 많습니다. 용현리에서 매해마다 해왔고. 사실은 연습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그 줄을 메야하는데 그 줄이 엄청 무거워 한번 메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전국대회에 나가야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래유물전을 가서 보시면 개막식 때 원장님께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천에 오시고 도와주신 이천시청,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회장 겸상덕) 다른 사항 없으시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금년도 하반기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5. 2015년도 주요 키워드

가. 지방문화원 인력의 고급화 및 직원 안정화 모색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한 지방문화원)

나. 지방문화원 회원조직 - 대위원제 도입의 노력을 한다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위원회(가칭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 1년간 운영하여 회원 선거 내부규정을 정비한다.)

다. 도연합회를 포함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 향토문화연구소를 전부 조직하고 31개 시군에서 모두 1개 사업 이상을 실시한다.

마. 민속예술제 작품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한다.

바. 직원 및 지방문화원 인력의 교육에 집중한다.

(역량강화)

6.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일 시 : 2016년 2월 15일(월) 11시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참석자 : 재적 15명 중 14명 참석

(부천, 의정부, 안산, 시흥, 광명, 성남, 양평, 고양, 여주,
평택, 안성, 파주), 위임 1명(연천)

의장(회장 염상덕)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봄비가 와서 많이 춥지 않고 또 해갈이 되어 좋은날만 오려나보다 했는데 오늘부터 또 날이 춥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원장님들께서 많이 수고해주셔서 무사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산, 남양주, 용인 등 6개 문화원장님들이 바뀌셔서 새로운 원장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 문화원 박성복원장님이 8년 임기를 마치고 홍성준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이·취임식 행사를 잘 치렀고 북부권원장님들 거의 오셨습니다. 그날 방규동 고양문화원장님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참 좋았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남부권 원장님들 참석이 저조했었던 부분입니다. 가급적 원장님 이·취임식에는 참석하셔서 석별의 정도 나누고 축하도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많이 참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준 예산사태로 늦게 승인이 되어 날짜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또 경기도문화원들 총회가 2월에 모두 몰려있기도 하고 부득이 도연합회

총회는 3월 3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문화원사업을 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셔서 큰일 없이 한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연합회에서도 '미래유물전' 이나 '경기도문화원을 만나다' 라는 책도 발간해서 상당히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늦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못지않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안건과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안건 그리고 제 25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이 되겠습니다.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2015년도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감사이신 시흥문화원 정원철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시흥문화원장 정원철) 감사 결과보고서 낭독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의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님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흔적이 돋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감사의 권고사항에 따른 첫 번째 도연합회 사무처 근무사항이 열악해 개선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권고사항 내용에 연봉 금액을 넣어 상향을 해줘야 한다던지 직원의 초임 임금을 연봉 2천 4백만으로 해야 한다던지 하는 것은 감사로서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초임근로자일 경우 기본급이 1백4십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화원연합회에 처음 들어오는 직원에게 “24백만원 연봉을 지급해라” 하는 것은 도를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상향시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게 아닌 정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직원들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하는 것이 각 문화원이나 임원분들이 먼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보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장이나 직원의 연봉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조수기의정부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보고서에 금액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5천만원선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보니 반드시 금액 문제만이 아니라 사무처장의 권위를 봤을 때 사무국장 협의회를 보더라도 도연합회 사무처장이 사무국장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액을 반드시 표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지만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보다 도연합회 사무처장의 연봉이 적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도 연봉이 2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명시로 어느 정도 연봉수준을 맞춰야 사무처장이 각 문화원의 사무국장들 사이에서 권위가 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무처 직원들이 한 달에 약 보름이상은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 50%이상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무처 처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회사는 아닙니다만, 31개 경기도문화원을 총괄하는 도연합회의 위상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연봉부터가 열악하다 보니 의욕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봉 문제가 돌출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여주문화원도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장과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연봉 수준을 알기위해 경기도내 직원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명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조수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안산은 어느 지역 보다 사무국장 연봉이 많았습니다. 4천 조금 넘었을 겁니다. 제가 문화원장이 되고나서 3천9백으로 내렸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타 시군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면 사무국장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 정년퇴임까지 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연봉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3천2백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연봉이 적다해서 다른 직원 연봉을 내리고 사무국장 연봉을 3천5백만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도에서나 더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수입처가 없질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31개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각각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맞춰준다면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도연합회 처장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에게 끌려 다닌 건 사실입니다. 도연합회 위상이 좀 저하된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달라졌으니 도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여러분들께서 문화원연합회를 염려해주시는 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이 원장님들 회비, 도와 한문연경상비로 얼마씩 나오고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근무했던 장과장이 결혼해서 직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2천만원으로 하니, 7-8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연봉이 너무 적다는 거였죠. 그래도 성남문화원에서 근무했던 박팀장이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는 적지만 도연합회에서 일해 보겠다 해서 2천만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면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애길 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은 현재 5천만원입니다.

다. 다른 곳도 그렇게 받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에는 연봉을 5백만원씩 올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운영위원님들의 염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더 말씀 있으신가요?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감사님들이 용인해주신다면 금액부분은 총회자료에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 운영위원 원장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시지만 총회에 참석하는 일반문화원 원장님들이 이 금액을 보신다면 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연봉부분을 늘린다면 시·군문화원에 혹시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문구를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연봉 및 처우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정도로 넣는 것이 어떠한지 두 분 감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을 낸 것을 여기서 수정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명문화원장(이영희) 감사님들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료에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사무처만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 연봉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다른 문화원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무보수직 문화원장들이 보수 받는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금액을 적어놓으면 아무리 감사의 권고사항이라도 문화원들은 그 권고사항이 또 적용되는 겁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각 문화원 입장을 고려해서 금액부분은 수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와 문화원과의 관계라는 게 서로 원만하면 좋은

데 좋았다가도 틀어지기라도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무처장이나 직원의 연봉을 이렇게 못 박으면 당장 저희 문화원부터도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지방문화원에서도 그 수준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다음 총회에 이 감사보고서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모두 당연히 나갑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금액만 올려놓는다면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 할 겁니까? 결국엔 원장들이 회비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정해야지 이걸 아닙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원장님들 고충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무처장 급여를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강행으로 반드시 이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서에는 4천5백만으로 했다는 말씀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각 문화원의 사무국장들이 모두 열악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치가 있고 각 지자체에다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이 사무국장들과의 원활한 관계유지와 사무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도연합회를 통해서 지방문화원으로

내려오는 현상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연합회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처장에 걸 맞는 힘과 권위가 있어야 문화원 사무국장 관리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보고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총회 보고서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2014년 감사 권고사항도 2015년도, 2016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한해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의 고충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총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들도 규정과 현실에 대해 원장님들의 말씀을 잘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회장 엄상덕) 현재 연합회직원은 연봉 2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후생복리비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여비 부분에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이 규정을 따로 정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만든 사항이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보너스도 없고 말이 2천만원이지 이것을 13분의 1로 나눠서 1개월분은 퇴직적립금으로 빼고, 4대 보험 빼고 나면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처장 빼고 모두 미혼이라 다행인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온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 내용이 뒷부분에 또 나오니 다시 심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보고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 정원장님께서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감사를 할 때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하고 장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그 대목을 꼬집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해야 운영위원회에서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개선할 사항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 해 놔라 저것 해 놔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퍼져나갈 파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각 문화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등한 독립법인인데 도연합회가 국가로부터 혹은 경기도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각 문화원에 나눠준다든지 인사권이나 감사권을 갖는다든지 한다면 도연합회 처장이 우월하고 보수도 더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수원원장님은 수원문화원이 건설하기에 사무국장 연봉을 5천만원 줄 수 있지만 안산문화원처럼 3천5백만원 연봉을 사무국장에게 줄 수밖에 없는 문화원들의 형편이 있는데, 이 권고사항처럼 사무처장 연봉이 5천만원 인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면 무슨 수로 해결할건지 생각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적사항을 삭제하지는 게 아니라 파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경기도문화원을 위하고 안정적인냐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점까지만 이것을 쓰고 총회에서는 “점차적으로 급여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로 안정화된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네 부회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되 그 문구는 상향조정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감사로서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그러면 연봉을 올릴 만큼의 금액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죠.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감사님 말씀은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책 없는 권고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님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제시 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죠. 점차적으로 그 여건에 맞게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그러면 경기도내 지방문화원은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도연합회는 당연히 5천만원 연봉을 받고 우리는 지방문화원이니까 3천만원만 받아도 돼 하는 문화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장(회장 염상덕)

자 원장님들 모두 참아주십시오. 원장님들도 적당히 권고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니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각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도 연봉을 5천만원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사무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금액부분은 빼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바뀌어서 도연합회에서 각 문화원에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각 시에 상급기관에서 보수기준에 대한 근거자료가 이렇다 라고 제시해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지 연합회는 잘 돌아가고 밑에는 엉망이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장과 시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수관련 금액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우선 기준이 애매합니다. 지방문화원을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근무연수가 각기 다른데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시에다 예산을 올렸을 때 2천만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매년마다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금액을 연차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무처장은 5천이다 4천이다 규정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님의 입장에서 5천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단계적으로 5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숫자를 넣으려면 용어를 바꿔서 넣고 감사하신 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예 숫자를 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네. 고맙습니다. 감사님들은 도연합회 걱정 차원에서 해주신 건데 확대해보면 각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게도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후 식사하시면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액수는 가급적 빼고, 성남문화원장(김대진)님은 감사로서 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금액부분만 빼고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원장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보고를 총회에서 직접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논란이 돼서 수정이 된다 라는 것은 원래 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워낙 현실에서 예민한 부분이기에 저희들은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의 등급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생각은 사무국장들이 일제히 들고 나오게 되면 각 문화원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다시 수기를 통해서 감사님들과 함께 조정을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보고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보고 사항을 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의의 있습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내용의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파기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계속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 얘기를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그런 사항들은 안건에는 없지만 기타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도 12월 18일 여주에서 문화가족합동연수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안건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안건으로 제시될 때 지방문화원 정관이나 사무규정, 운영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할 테니 그때 다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겠죠.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그런 것이 아니고 이문제가 총회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뭐했냐고 하

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총회에서는 가능한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죠.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어떻게 그게 총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총회에 가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아픈 상처를 치료하자는 뜻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런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냐는 겁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권한이 왜 없습니까. 권한이 없으면 감사 보고를 왜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여기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님이 말씀 하셨듯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감사보고에 5천만 원을 쥐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상향조정해라 하면 다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그런 총정으로 총회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안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운영위원분들이 상향조정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감사님 본인 생각만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져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님 숫자를 없애자는 저희들의 총정이 좋겠습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이게 뭐냐면 감사한테 이것을 재 논의할 수 있느냐라는 의향도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좀 전 정원철감사님이 수정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잖습니까?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감사님께서서는 뭐든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감사의 권고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런데 3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권고사항은 맞는데 대책 없는 권고사항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명시해놓고 이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러니까 이것의 권한을 인정하게 하려면 운영위원회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자 그만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연합회를 염려해주신 총정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두 분이 금액을 명시했다는 것에 대해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나 이만큼은 해야 일하는데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신 건데 저희가 총회에 보고를 할 때는 감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금액은 빼고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감사보고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락>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낭독하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건은 이미 감사보고에도 들어 있고 1년간 진행 되어 온 것을 봐온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다만 한 가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51쪽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문화원 뺏지 라고 되어있는데 사무처장 예비비는 언제 써야하는지 아십니까? 1백5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수용비나 물건비에서 사무용품 사는 것을 덜 사고 거기서 집행해야지 예비비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사회 동의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은 사무처장선에서 실수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기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의 없으시면 제1호 안건인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건은 원안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을 제안합니다. 사무처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낭독하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인건비가 한사람부분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처장의 인건비만 되어있고 두 직원의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사업비 속에 계산이 되어 있다고 작년에도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비교해 조금도 개선된 점이 없는데 올해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회비가 회장부터 부회장, 운영위원 회비가 다른 시, 도연합회보다도 저희가 많은 것으로 작년에 조사된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전 말했던 직원들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회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됩니다만, 도에서 운영비를 받아 거기서 소화를 하면서 회비는 전국적인 수준에 유사하게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비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최영주)

먼저 직원 인건비 말씀해 주셨습니다. 77페이지부터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문화가족한마당 예산이 1억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축제전문인력이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제도 보시면 축제전문인력으로 1천만원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문화저널에 사업주관으로 1천만원,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 사업의 사업비코디네이터 비용으로 1천만원, 추가 찬조금 형식으로 8백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예산과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 사업코디네이터 비용으로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뺄 수 있는 비용이 7천만원이고 이 부분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7억9천이되기 때문에 팀장급 2명과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직원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2천5백만원씩 2명과 2천만원 1명으로 3명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업인분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인건비도 종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회나 도문화정책과에서 도연합회 인건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인건비는 인건비로 정확하게 해야 그 쪽에서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지 사업비에서 챙겨 인건비로 쓴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하겠구나 하겠죠. 시장, 군수들이 판공비를 그런 식으로 숨겨놓습니다. 사업마다 얼마씩 문화정책부분, 체육부분 각 부분마다 그런데 문화원연합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쓴다면 방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직원은 해고 돼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그리고 계속적인 근무를 하게 하려면 4대보험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을 정석대로 가야지 사업비에서 직원 인건비 예산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와서 보

니 인건비 항목이 없는 겁니다. 도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그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승인한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도에 예산을 올려 승인이 나서 내려오면 그걸로 쓰는 겁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어쨌든 그 자체가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도개선 위원회를 했을 때 도연합회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문화원자체도 시에서 인건비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책정해줄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각 지방문화원에는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연합회는 인건비 항목이 없습니다. 연합회 측에서도 오용원회장 때부터 이경동회장도 그렇고 인건비부터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단체가 워낙 많으니 못해주는 모양입니다. 공문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도에 보내주면 그것은 해준다는 겁니다. 도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도연합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 7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문화육성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느닷없이 페스티벌31을 1억으로 개최하다보니 도에서 봤을 때 꽤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내 동아리 모임이 500개가 되니 그 동아리들을 착출해서 사업을 만들어봐라 해서 내려 보내 준건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도연합회 총예산이 작년에 비해 1천만원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파주, 성남으로 나온 예산은 도의원들이 심어놓은 예산입니다. 생활문화육성동아리 사업을 5천만원 들여서 하려면 난 못한다

고 했고 말도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수원문화원만 봐도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직접적으로 내려 보낼 수가 없으니 문화원으로 몇 억씩 내려옵니다. 그럼 이사회를 거쳐서 그 예산의 10%를 요구하고 다시 전도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연합회에도 북부권으로 5천만원이 내려 왔길래 10% 내놓으라고 했더니 성남과 파주도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문화정책과장에게 도의원들이 그렇게 무섭냐 그런식은 안된다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도 연합회 인건비 7천만원 세워달라는 거 세워주고 그 의원들이 해달라는 사업에도 10%씩 내놓아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내려와도 안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 맞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림도 없는 것이겠죠. 저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 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한다면 또 받아야겠죠. 그러나 인건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놔야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시흥문화원장(정원철)

2014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권고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인건비로 8천만 원정도 더 해달라고 계속 붙들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처장님 지방문화원에서 회장님을 비롯해

서 받는 회비가 4천9십만원, 이월금과 인건비 2천만원 확보한 것을 합하면 6천만원이상 되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자체수입에서 주는 방안을 놓고 사무용품 사는데 부족한 것은 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잡아야지 여러 원장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직원들 인건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니 자체수입이 없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한 7천만원정도의 자체수입이 있으니 그것을 인건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각 시군에 문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말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인건비를 정하는 방법으로 문광위원들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예산 세우기 직전에 경기도 문광위원장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방문화원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적인 상황을 거의 모릅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앞에서는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나중에는 모른다는 식이니 뭐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도의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는데 시의원들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죠.

의장(회장 염상덕)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의 없으시죠?

모두 네

의장(회장 염상덕) 제 2호 안건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제 3호 안건으로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제안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낭독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정기총회는 3월3일로 정해졌습니다. 의의 없습니까?

모두 네

의장(회장 염상덕) 제3호 안건인 정기총회 개최의 건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도연합회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인데 먼저 지난 12월18일에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제도개선운영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1년간 운영해서 지방문화원 내부규정이나 운영조례를 정비한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규정이나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었으면 했는데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등 제도개선 특별위원장으로 조수기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비롯해서 다섯 분 정도로 대략 구성을 해주시면 총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조례나

규정을 수정해보고자 하는데, 여러 원장님들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조수기원장님을 비롯해 정원철원장님, 김대진원장님, 이하준원장님, 박형재원장님, 김봉식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중략>

고양문화원(방규동) 지방문화원 정관을 낭독하다.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 정관 17조 4항이 맞긴 맞는데 문맥을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장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문항이 왜 문화원장한테만 적용되는지 이것은 한문연 측에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조수기 원장님이나 회장님께서 중앙에 회의를 가시면 반드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수기원장님과 정원철원장님이 발제를 해 오늘 위원들을 선정했으니 앞으로 1년 동안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25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11시
- 장 소 : 부천문화원
- 참석자 : 재적 31명 중 29명 참석(수원, 부천, 의정부, 안산, 화성, 연천, 용인, 시흥, 광명, 과천, 양평, 양주, 안성, 여주, 평택, 김포, 가평, 구리, 광주,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양주, 오산, 의왕, 이천, 하남, 포천)

의장(회장 염상덕) 작년에 여러 원장들께서 이 취임식을 가졌었는데 두 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문화원 한봉우 원장님(전원박수), 양주문화원 홍성준 원장님(전원박수)이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연합회에 직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임 직원이 건강상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총무팀장으로 진숙씨를 채용했는데 진숙팀장은 2008년도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원장님들은 알고 계셨고, 또 한명은 오다예라고 안산에서 살고 있고 이번에 같이 채용이 됩니다. 인사드리세요.(전원박수)

의장(회장 염상덕) 2016년도 25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씨가 좋지 않았었는데 총회를 한다 하니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예산이 결정이 늦어야 하는 건데 계속 미뤄지다가 1월 말이 되어서야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는 총회를 2월 중순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연합회에서 예산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뤄지게 되어 이제야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방보조금을 작년에는 천5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동아리 사업이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합동연수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개선사항을 잘 수용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 선임을 했었죠? 위원님들 인사를 드리시죠.

사무처장 지난 운영위원회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부회장님 세 분과 운영위원 세분을 포함하여 여섯 분을 선임했습니다. 먼저 부천문화원 박형재원장님, 의정부문화원 조수기원장님, 안산문화원 김봉식원장님, 감사이신 시흥문화원 정원철원장님, 감사 성남문화원 김대진원장님, 그리고 김포문화원 이하준원장님 이렇게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지금 사무처장이 보고 드린 대로 여섯 분을 지속가능발전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연합회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 못지않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도도 큰 일 없이 진행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이정도로 마칩니다. 총회 부의 안건은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과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건과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략>

의장(회장 염상덕) 다음은 2014년도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보

고는 시흥문화원 정원철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자료집 37쪽에서 47쪽까지 감사보고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낭독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감사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의의가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고맙습니다. 모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시죠.. (모두 박수) 감사보고를 하였으므로 2015년도 감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사무처장 설명하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80쪽입니다.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백 삼십 여 만원이 있고 산출기초에 보면 4대 보험 및 야근식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4대 보험 예산안에 왜 야근식대가 들어가 섞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00000부분은 추경예산 때 2백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자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조비가 있는데 예

산을 경조비 항목으로 세워놓고 사용하다보면 예산대로 그 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조비를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되는데 경조비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말 그대로 경조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경기도연합회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되면 안 되기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동의합니다.

구리문화원장(김문경) 이런 것 들이 회장단회의 때 지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시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작년도 집행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항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업무추진비로 경조비를 모두 편성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책정하기보다는 경조비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저는 이것을 경조비나, 포상비를 반드시 연합회장의 업무추진비로 써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연합회장도 쓸 수 있고 직원의 업무추진비로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히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의청(회장 염상덕) 없으시면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의 말씀대로 시정 조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의 건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사무처장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설명하다.

의장(회장 염상덕)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제 2호 안건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 조수기원장님께서 경조비라든지 포상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복리후생비 아래 명절효도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1,833,334원×3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처장 네 그것은 설명절과 추석, 여름휴가 비용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럼 3식이면 한사람만 준다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아닙니다. 1,833,334원씩 직원 수 포함해서 세 번 준다는 뜻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 부분은 얼마 곱하기 몇 명해야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세 번의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으니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5,500,000원을 3으로 나눠 보십시오. 이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작은 금액이고 그냥 세 번 주는 거니 3식으로 했는데 단위가 원인데 세 번으로 잘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경기도 시낭송의 밤이라든지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생활문화동아리사업 등 울곡문화제까지 쪽 봤을 때 코디네이터 비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은 도대체 어떤데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문화원의 경우 시비에서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보조금 이외 경상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경상운영비로 작년도 천5백만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문화원장 임원진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직원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경상운영비를 도에서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일은 늘어나고 직원 인건비도 없이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비외 그 사업을 주관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대로 도에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업주간으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그 직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사업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는 기획사에게 2천만원이고 세워져 있는 금액을 주고 되돌려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획사에게 나눠주고 몇 백 만원을 도연합회 직원의 급여로 쓰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사무차장 지금 3명의 직원과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원금에 있는 코디네이터 비용을 직원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게 예전에 쓰던 변칙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낭송이라고 한다면 준비는 2-3개월 전 부터 할 것이고 9월이나 10월에 시낭송사업을 하고나면 사업이 종료 되어버리는 건데, 만약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면 9개월이나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까 괜찮으나, 시낭송이나 생활문화네트워크사업 처럼 단기 내에 쓰는 코디네이터를 놓고 그와 관련된 직원을 1년을 쓴다든지 10개월을 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회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12월31이자로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경상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라도 받게 되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승인해줬으니 용인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에 감사를 받을 시에는 도에서 그런 용도로 썼는지 몰랐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연합회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해 준거지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 비용이라 하면 기획사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에게 말기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사업 인건비로 한다는 건 좀. 여기 직원들도 있는데 안 됐습시다만 이렇게 되면 문화원연합회에 오랫동안 근무할 일반직원이 없고 자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측면에서 실적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변칙적인 옛날의 방법으로 해서는 위험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7천만원을 인건비로 개선해다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인가 도에 국장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사업비라는 것이 목적사업이외는 쓸 수 없지 않느냐? 여기서 인건비를 써야하는데 이것을 개선해다오. 옆에 있던 도 과장이 인건비 지출을 해야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여기 보면 회원들이 내는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데서 조금만 보조 받는다면 직원 2명의 인건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하면 간단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저기 다 섞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내는 회비가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쓰고 도비 받은 것은 사업비로 쓰면 되는데, 지방문화원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지금 예산에는 2천만원 경상비로 되어있는데 2월에 4천만원으로 계획서를 올렸습시다만,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도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화원만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있지 않으니 그게 곤란 하다고 했답니다.

의장(회장 명심덕) 그러니 인건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임회장 있을 시에도 한문연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문체부에 올리겠다고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가 워낙 많으니 우리 문화원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용도로 내려주면서 사업비에 계약직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올리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대폭 뜯어고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각 지역 출신 도의원에게 말을 해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하자는 것을 설명하자는 것이지 모든 자료를 뜯어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사항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의 말씀은 각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도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구리문화원장(김문경) 도연합회 경상비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사안을 논의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의장(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과 연합회를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설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의하실 점 없으시죠? 2016년도 세입, 세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기타안건으로 김포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김포문화원장(이하준) 긴 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품앗이에 관한 사업을 최창섭교수라는 분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같이 하기에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김포문화원원장 자료집 낭독하다.

사무처장 이것으로 2016년 제25차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일 시 : 2016년 3월 22일 11:00~

○장 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참석자 : 염상덕(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박형재, 조수기, 김봉식(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정원철, 김대진(감사)

이하준(운영위원)

사무처장 경기도청에 올린 사업계획서 상 사업명은 '경기도 지방 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다. 내용은 1) 현 정책현안 토론 및 조직경영선진화, 사업운영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2) 토론 및 위원회 운영 성과 집계 후 결과 보고서 제작한다 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단이 생기고, 문화원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지역 내 문화원 위상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직/경영선진화, 사업추진역량이 선진화 되어야한다. 조직경영선진화를 위해서 법, 제규정 정비와 조직/경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보자. 외부에서 문화원을 바라볼 때 가장 부러워하고 강점인 것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시스템화, 강화 시키자. 사업추진역량선진화에 있어서 문화원의 기획역량을 강화시키고, '문화원은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또는 '문화원은 이런 것을 한다' 는 일관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하지 않을까? 문화원 예산의 90%가 지자체 재원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문화원 자원 다양화로 영역,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까를 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안을 작성했습니다.

추진방향 및 역할 안으로 문화원의 위상강화와 지역문화원 내의 격차가 있음을 알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사업예산을 지원, 사업추진방향 조정, 현황 DATA 분석 및 집계,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 및 추진 사항을 문화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직, 경영, 사업관련 어젠다 도출, 정책의 구체적 목표 및 추진방안을 합의하여 도연합회의 총회 등을 통해서 추진하기를 권유하고, 지방문화원 단기, 중기 목표 설정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안들을 가지고 지방문화원의 조직, 경영이 개선이 되고 사업 기획 강화 및 성과관리 개선, 네트워크 강화, 문화재원다양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표설정으로 어젠다 구성에 대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직/경영선진화에는 법적/제도적 정비 즉, 정관, 내부규정 정비가 되겠고, 조직 정비 및 안정화에서 문화원의 회원제도, 사무국, 위탁기관, 부설기관, 산하단체,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들마다 행정서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식의 표준화로 '아 문화원은 이렇다.' 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을까, 관리체계 일원화로 어느 문화원을 가든 비슷한 관리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관리체계 정리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추진선진화에서는 5꼭지로 정리했습니다. 재원구조 다양화 방안 모색,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회원 구조를 정비해서 회원들이 많아져서 지역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보자, 네트

워크를 활용한 문화원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향토문화사업의 제안 및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원 기획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전체추진일정(안)입니다. 이 일정은 2016년도 경기도비 교부신청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회의에서 정해주시길 바라며, 대략적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이며,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결정된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도연합회에서 4월, 1달 동안 현황 데이터 분석과 자료를 집적하여 의제(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6월로 계획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현황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제를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경기도 문화원 전체가 모여 <경기도지방문화원지속가능발전을위한토론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하고 조직경영선진화/사업추진역량선진화 방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와 1, 2, 3차 회의 결과를 11월에 결과보고서로 제작하여 12월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에서 <2017년 어젠다 선포식>, 즉 2017년에는 경기도 문화원이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 목표를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처장의 설명은 마치 이 회의가 문화원 발

전을 위한 만능 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입안하는 전문용역기관이 자료를 만들어내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두 번째는 당면 과제, 즉 조례 제정이나,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당면하고 1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국한하여 할 것이냐 중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첫 번째로 설명한 TF팀 성격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결과물을 내놓을 때 늘상하는 소리가 아니냐? 라는 비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모인 원장들이 단위문화원에 재직 중이라 계획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가? 8월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지 의문입니다. 자료라도 미리 주었으면 검토를 해보고 안을 마련해서 왔을 텐데, 아침에 자료를 보니 난감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회의의 성격과 어떤 사업을 할지 목표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회의 자료는 어디서 뽑은건가?

사무처장 한문연에서 만든 지방문화원 발전방안을 기초로 사무처에서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자료는 잘 만들었는데, 6명의 원장이 다방면의 내용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회장(염상덕) 위원장을 먼저 선임해야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위원장님은 당연히 회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회장(염상덕) 꼭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본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총회에 상정하고 실현해 나가야하면, 회장님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가셔야하므로, 회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우리 원장들은 위원으로 하고 도연합회장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그것이 맞습니다. 성격이 중차대하니까요.

회장(염상덕) 우리 의정부 원장님이 연합회에서도 중책이시고 경기도 상황도 잘 아시니까 위원장을 하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이 안건들이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님이 연속성 있게 끌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호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회장님 말씀대로 용역기관에서 해줘야 할 일이고, 다들 바쁜데, 발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각 문화원에서 이 안건에 동의가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상하 관계가 아니고, 문화원마다 특징이 다르니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나 당면한 문제는 고칠 수 있지만, 정책이라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표준안을 만들어서 권고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문화원의 조직, 예산, 인원 등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의논된 사항들이 각 문화원에 제대로 적용이 될까? 정관이라든지, 총회라든지, 내부 규정이라든지, 표준안을 만들어 공지하면, 틀 범위에서 가감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하게 나아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부터 만들도록 했으면 합니다. 회의 서류를 사전에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가능한 사항부터 추려보고 참고로 ‘경기도문화원을 만나다’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각 문화원 현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각 지방문화원에 양식을 줘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12월 말에 보내준 문화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았느냐? 가 또 문제입니다. 관심 있는 원장님들이

계신 문화원은 자료가 자세히 나오는데, 성의 없이 작성한 곳들도 있어서 누수된 것들도 많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정을 더 만들고 하다보면 완벽한 책이 내년이나 후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미리 자료를 보내줬으면 방안을 마련해왔을 텐데 지금 내놓고 검토를 하라니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가서 충분히 며칠 씩 검토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문연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한문연은 지속발전가능위원이 아니라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 법, 문화진흥법, 조례, 정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거기 에서도 위원장이시죠?

안산문화원장(김봉식) 타 시도(연합회)도 만들었습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행히 안성맞춤인 것이 한문연에서 지방문화원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문제점을 많이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문화원들은 2016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소해나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전국의 타 시도문화원연합회도 경기도처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사례입니다.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그렇다면 타 시도도 만들 것 아닙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빨리 대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발전방안도 있고 여러 문제점도 제시했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상반기에는 무엇을 하자. 오늘 회의에서도 몇 가지를 주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텐데, 회의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무엇이 시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한 달간 기한을 주세요.

위원장(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인데, 기회를 드려도 이 책가지고 그냥 가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뿐입니다. 제목을 정해주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여기서 바로 받아보고 무슨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까?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배포되면 안됨

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져야합니다.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겁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부천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회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안으로 제시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문기구입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전체 총회에서 아젠다를 발표하려면 회장
님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질적인 안이 되게 하고, 총회에 상
정해서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지방문화원발전방안 이것 잘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문화원으로 돌아가서 부원장, 이사들과 상의 후
안을 만들어 오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회의 진행을 제가 안을 만들면, 부원장
들, 이사회를 통해 토론하고 총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안을 내신
건데, 모두들 생각이 다른 것 아닐까요.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우리에게 가장 당부한 문제가 무엇인지
안을 정해서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고, 예를 들어 4월 며칠 째 회
의를 해 그때, 이 사업의 방안을 토론으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
니다. 중앙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로 문화진흥법을 개
정하려고 하면, 검토해서 토의하고 안을 달라고 합니다. 토론하고
검토해서 그 결과를 주니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우리도 검

토하여 우선 해야 할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연합회는 연합회끼리 하고 우리는 각자
문화원에서 정해 왔으면 합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회의를 진행하려면 안이 있어야합니다.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개인의견을 첨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
다. 안이 없으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됩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지금 이것이 안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이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할
것이라든지 분야를 짚어주시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안을 잡아서 토
론을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그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바탕으
로 제기된 문제가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지난 총회 때, 고양문화원장(방규동)님이
'형사소추만 되면 원장직을 직무정지시킨다.' 라는 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관은 잘못되었습니다. 농협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으니, 각자 돌아가서 연구했으면 합니

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규정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규정도 각 지역에 맞게 정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규정이 필요 없어서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 정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괜찮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도연합회에서는 경기도 31개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과 아닌 곳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각 문화원 정관도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총람에 지방문화원 현황에 개별적인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것은 총람이고 정관이나 이런 건 안 되어 있잖아...

사무처장 총람 2부 세부현황에서 문화원 원사 소유현황, 사무공간 현황, 기타시설 현황, 조직현황(임원 회원,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원 총 회원수가 9,025명입니다. 부원장, 이사, 운영위원 또는 자문위원, 고문제도 운영하는 곳들 현황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140명입니다. 평균 직원 수가 4.5

명이고요, 인건비 및 근속현황으로 사무국장의 평균 근속현황은 4.77년, 직원은 4.78년, 채용 형태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어서 조사했습니다. 경기도문화원부설기관현황, 즉 산하단체, 봉사단체, 위탁단체, 동아리 개수가 195개입니다. 그리고 각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했고, 운영현황으로 조례제정현황, 정관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임원 및 임기 현황을 보면 각 문화원마다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이사, 부원장, 감사 인원, 원장 지명 선임 한계도 다릅니다. 내부규정 제정 현황으로 인사, 복무, 직제, 위임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여비, 회계, 보수규정 현황도 있으며, 선거관리규정도 조사했습니다. 정관 내에 대의원제도 운영 조항 유무도 조사했으나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관 상에는 있는데 실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규정 외에 각 문화원에서 상황에 따라 제정된 기타 규정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현황표를 보시면 경기도 문화원들의 총 경상운영비가 71억 4천만 원, 사업비는 104억 1,200만 원이고 경기도 문화원의 총 예산이 17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처별로 지자체 지원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부담, 후원금 등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상 운영비도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집계했습니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에서 1년 동안 33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물, 세시 풍속 등 사업 소재별로 조사했고, 축제 현황,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강좌 현황, 홍보 사업 현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문화원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이 8,901명입니다. 문화강좌도 강좌 장르별로 구성했으며, 문화원별 현황을 파악하려고 세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조사하거나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참고 말씀 드립니다. 발전 방안 요약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원장님들이 설문조사를 관심 있게 체크를 해주시면 잘 작성되어 회신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많이 빠진 채 회신되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임기라든지 문화원마다 각각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우리가 가져가서 연구를 해서...

위원장(회장 염상덕) 심지어 선거관리규정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장은 어떻게 뽑고 하나. 그런 규정 같은 걸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4월이나 틈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처장이 대략 보고해 드렸지만, 다 구구각각입니다. 문화원에 있어야 할 규정이라든지가.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우리는 폐지되었는데, 이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201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래서 그렇군요.

위원장(회장 염상덕) 이 회의를 염두에 두고 미리 만든 자료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계획을 사전에 추진하셨군요.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이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의 문화원사는 반듯하게 되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은 뒤쳐져 있죠. 문화원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앞으로 이것보다 열악해지면 열악해졌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문화단체들이 많아지고 도전하는 곳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노력하지만, 하다 안 되면 기댈 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시군문화원들이 지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곳은 첫 번째는 도연합회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사업예산을 일부 나누어 주지만, 도연합회를 쳐다보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기만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도연합회가 강력한 도연합회가 되어, 예로 경기문화재단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원 네트워크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역량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조직을 보강하게 한 이유가 이런 기능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는 백년대계를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라는 큰 생각을 해야 한다' 는 의미로 제안한 용어입니다. 만약에 제도 개선 정도라면 굳이 이 위원회를 둘 필요 없이 사무처가 문화원장들과 조율하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총회 의결하면 표준안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직경영안정화 외에도 연합회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되고 강하게 만드느냐 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점을 알려져 예산을 다양하게 받아올 수 있을 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외에 타 지역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원 외에 여타 잘하는 문화조직, 문화의집이나 청소년관련된 곳 등에서 조직운영이나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용역을 맡기면 쉽습니다. 문화원장님들이 그 사람들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런 자료를 모을 때, 우리가 가미하여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또 발이 되어 움직여 줄 수 있는 건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를 1년 동안 끌고 가야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나누신 것에 마음으로 확장시켜서 움직이고, 사무처도 직원이 3명으로 보강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처장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면, 처장 앞으로 일이 더 늘어날 뿐이니,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장님이 하시고, 실무는 처장이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필요할 때는 동행도 해주고 자료를 모아주고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진지한 검토를 해 주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열악하다보니 도연합회가 강력해져서 1년에 예산 천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중간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혼자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직원들이 총원이 되었지만, 숙달이 되지 않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안산을 예를 들면, 직원은 시에서 할당해 준 인원이 근무 중입니다. 도연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선우 지 회장 때도 직원이 둘 뿐이었죠. 그 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를 안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 청소년민속예술제를 부천에서 하는데, 모든 걸 위임해 주면면 직원도 필요 없죠. 감사형식으로만 참여해야지. 지금은 도연합회에서 지금은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서 직원들 모든 급여를 지급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닌 상황에서 직원만 늘어나니 문제만 늘어납니다. 일을 분담해서 할 생각도 안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형식처럼(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회장 염상덕)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가 정확히 몇 년도 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2억 정도, 3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도 한 명이었죠. 정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돈을 뜯어다가 할 형편도 못되고, 직원이 적어도 됐습니다. 각 시군에 위탁을 해도 됐었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지역 문화원으로 도연합회 사업을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일은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면서 기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면 낭패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곳과 되어있는 곳이 다르겠죠.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시흥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제도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정액 보조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무처장이 일을 많이 하고 직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 체계를 갖춰놓으면 전문화를 시켜야지. 직원이 2~3년 근무하면 전문가가 되어 알아서 할 수 있어야하고, 업무 분장을 하여 처장이 총괄만 하면 되는 건데, 사업비로 인건비를 주니 직원들이 1년 있으면 그만둡니다. 노상 새로 들어오면 사무처장도 경험해봤겠지만, 직원이 새로 바뀌면 일 가르쳐 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처장이라도 힘들 겁니다.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과거에는 한두 명이면 되었겠지만, 사업 영역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릅니다. 회의를 11시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 사항은 9시에 하시면 안 될까요? 10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3시간은 회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문화원 여직원이 하나 나갔으면 문화 종사자를 뽑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안산 시사도 만들고, 성호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빼왔습니다. 4월에 여직원이 한 명이 나갔습

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뽑아야할 것 아닙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런 인력은 보수를 많이 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제도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연합회 직원
에게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부터 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그렇죠. 전문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이력서가 많이 접수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
었죠?

사무처장 총 40명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남직원으로 뽑을까 했는데, 연봉 2천만 원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회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
국장이 3천5백입니다. 이현우 국장이 몇 십년을 했어도 3천9백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더 올려주라니, 오래된 사무국장들이 사무처장이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말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문화원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연합회가 되겠습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12월 31일자로 도의회에서 의결 공포된 문화단체지원조례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 내용에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도의원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조례를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 시키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래서 여기 오기 전 우리 지역 도의원들 8명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집행부와 타진을 먼저 해보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의원을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부터 개선시키고 따져야지, 일정한 봉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향후 도지사가 바뀌어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으면 또 똑같아 질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놔야 꿈쩍을 못합니다. 그러니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따지고, 없으면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다음 회의 때까지 대안 제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발의는 언제 짬 할 생각이십니까?

부천문화원장(박형재) 빠른 시기에 해야 합니다.

니다. 그런데 도에서 근거가 있어야 해준다해, 연합회에 문화부를 통해서 문화원이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문화부도 단체가 많으니, 문화원연합회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운영비, 경상비를 원장님들이 내주신 회비로 사용하는데,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사업비인데 인건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재단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올바르게 가려고 해도 여기서부터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만 해도 광범위합니다. 규정, 조례 등이 각 문화원마다 가지각색이죠. 몇 가지는 필수로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문화원 상황에 따라 더 정해지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음 번 회의 때는 제도 개선만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처장은 재단과 관련된 사업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보고 사항이며 몇 가지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 받은 사업이 5가지입니다. 우선 경기도 100대 문화원형 상징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100개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경기도문화원형토론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내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 정도로, (재단은)경기도 문화원형 발굴을 기존에 문화원들이 열심히 해오고 있으니, 문화원의 성과를 공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토론회에도 문화원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관련 발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를 바라

고 있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학예사들의 네트워크 사업, 문화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학예사들이 지자체 또는 문화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문화원으로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네트워크 사업은 경기도 문화원의 임원, 회원 또는 향토사 관련 연구자들에게 워크숍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람에 경기도 지방문화원이 진행하는 축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경기도 지역 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했었습니다. 또 경기도 마을조사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재단과 도연합회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재단의 사업명은 경기도 마을 기록사업이고 도연합회의 경우는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사업이었습니다. 도연합회에서 마을을 선정하여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1:1 매칭 이어야 한다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이며, 재단에서 1천이고, 문화원에서 1천을 매칭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문화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기추진 사항으로 2014년에 용인 오리골, 2015년에 시흥지역 마을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학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문화원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추진할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문화원의 경기도 마을 조사 사업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 문화원 중에서 사업비 천만 원 마련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지금까지 50% 자부담을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런데 지금은 지역문화원에서 천만 원을
충당해서 하라니...

사무처장 이번에는 매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마을 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문화원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가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 4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 천만 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6백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년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문화원에 마을 조사 사업 예산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의정부에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저희 같은 경우 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재단과 함께하게 되면 재단 쪽에서 선정하는 연구원들이 일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미리 섭외된 연구원들이 있는 경우 매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지역 향토문화연구가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작년에 시흥에서 진행할 때 문화원에서 1명을 연구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분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박사급들이 진행하는데 재단은 그런 인력이 많지만 지역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인적 구성은 주로 재단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학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를 버리지 않고 지역학을 향토문화연구소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고 한 파트로 지역학부문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경기향토문화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설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성남도 성남학연구소가 있는데, 원칙은 성남향토문화연구소가 맞는 겁니다. 중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흥문화원장(정원철) 향토문화연구소입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요즘엔 지역학으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좀 전 말씀대로 요즘 흐름입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흐름이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수원에서도 수원학 연구소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부설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년인가 12년 되었죠. 수원시정발전연구원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대학교수들 등 전문 집단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수원학연구소를) 달라고 해서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수원학연구소라고 했더니, 성남도 성남학 연구소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곳인데 지역명 넣어도 문제없지 않나요?

사무처장 이하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지역학으로 하게 되면, 지역학내에 문화, 역사, 경제, 사회 등을 다 통합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수원, 용인, 평택, 성남 등은 지역학내에 역사, 문화, 사회, 정치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의 지역학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문화원에서 선점하자는 의도로 발 빠르게 이름을 바꾼 경우 같습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안산도 안산학연구소라고 생겼는데, 이사장이 문화원 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향토문화는 1/10밖에 안 됩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김포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김포대학과 문화원이 지역학 연구소를 내자고 제안을 했고, 학생들의 교양학 개설했습니다. 김포 문화, 역사, 인물 중심으로 몇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요구하기를 대학 내에 연구소를 두고 문화원과 함께 일을 하자였습니다. 지금은 시의 보조와 대학의 예산으로 지역학 교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김포에 대해 알고 졸업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를 개편하기 위해 당분간 쉬기로 했고, 지역학으로 할지, 향토문화연구소로 할지 논의 중입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받게 되면 각 문화원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관심 있는 문화원에서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김포도 작년에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재단에 마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넘겨 달라 요청 했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작년에 성남문화원에서 지역축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갯골이라고 습지 지구가 있고, 거기에서 하는 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연밭에서 하는 연성 문화제도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시와 논의하여 시흥에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식행위를 거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심포지엄은 시흥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안은 해외 연수 건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1, 2, 3안을 보시면 됩니다. 재단에 4천만 원 신청해서, 4천을 지원받는다든가 전제하에, 원장단 3천만 원, 국장단 천만 원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1안으로 동유럽 발칸지역이며 7박 9일입니다. 금액은 3백5십5만원에서 3백7십5만원 사이로 결정될 것 같고, 일정은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 중 7박 9일입니다. 직항이 없어서 이스탄불 경유 터키항공으로. 여행경비가 있어서 자부담비율이 높습니다. 20명 기준으로 개인 자부담이 2백에서 4백만원대, 16명 기준 2백2십만원대 입니다. 예년 참가 인원수로 보자면 1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안의 동유럽은 8박 10일이고 경비는 3백9십5만원부터 4백십5만원 사이 입니다. 일정은 1안과 같이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8박 10일입니다.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일대 투어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직항이며, 경비는 20명 기준 2백7십만원대, 16명 기준 2백3십만원대입니다. 3안으로 베트남 다낭이며, 3박 5일로 해외연수는 원장님들간의 친목도모 목적도 있는데, 유럽은 자부담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부담비가 낮은 곳도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20명 기준으로 3십~5십만원 입니다. 자부담비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연수 장소를 결정하고 사업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6월이 되면 결정이 되어야 해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왜 1, 2, 3안만 있습니까?

위원장(회장 염상덕) 이것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와서 이번에는 동유럽을 가면
어떨까하여 안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이나 가까운 곳도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대만도 다녀왔습니까?

사무처장 작년엔 직원연수로 다녀왔습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어느 해인가는 한국연합회와 도연합회 일
정이 겹쳐서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연합회와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그런데 열흘씩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안산문화원장(김봉식) 다낭은 3박할 곳이 아닙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제가 발칸지역을 2008년인가 9년에 다녀왔습니
다. 여기 기온하고 비슷하기도 하기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1번안이 제일 좋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원장님들 문화원에 열흘씩 빠져도 됩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지금 1안으로 안산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겁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원장님 빠진다고 문화원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코스는 1안 코스가 제일 좋습니다. 연합회에서 이대로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부천문화원장(박형재) 일정은 변경할 수가 없나요? 6월이 아니면...

사무처장 7월이 넘어가면 굉장히 덥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 7일부터 15일로 정했었는데, 연합회 해외연수랑 또 겹쳐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위원장(회장 염상덕) 저희가 일정을 안으로 결정하고 나서 연합회 공문이 왔는데, 우리보다 하루 먼저 갔다가 하루 먼저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했습니다.

사무처장 7월 이후는 너무 덥고, 성수기가 겹치면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6월 초엔 단오가 있습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연합회 연수를 가실 분들도

시흥문화원장(정원철)

니다.

일정은 이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

사무처장

요금이 같다면 일주일 뒤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연합회에서 회의 할 때, 예산을 세우는 등 중요한 안건은 회장단과 상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지휘하는데 부회장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합회에서 회의 할 때, 예산을 세우는

위원장(회장 염상덕)

다.

그럼 이것으로 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

9.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6년 8월 12일 11시
- 장 소 : 안산문화원 강의실
- 참석대상 : 참석 : 8 위임3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병환 중이셔서 선임부회장으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심의의 건, 임원(운영위원) 추천의 건, 2016년 하반기 임시총회 일정 및 안건확정의 건입니다.

<중략>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제1호 안건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설명하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연합회 사업증액으로 4천백7십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문화품앗이사업이 문화자원봉사와 다른 사업입니까?

사무처장 같은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내려줬었는데, 한

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연합회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증액해서 6천8백7십만원 해서 지방보조금
5백이 삭감된 게, 찬조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길 바
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다음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설명하다.(회의자료 경과보고 중)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의견 있으십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제목에서부터 경기도 표준이라는 말은 한
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시도연합회에 지침을 내려줄 때 표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표준을 쓰면 안 됩니
다. 표준을 삭제해야 하고, 경기도에서 만들어져서 제7조 재산의
출연. 시도지사는 부분에서 시자는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조
맨 밑에 사업보조의 용도 단서를 넣어서 "단, 위의 사업수행을 위
해 필요한 인력의 비용을 사업보조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문구
는 거의 될 가능성이 없고 본래 경기도 보조금은 사업비를 주는 것
이지 경상비나 인건비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도의원들한테 밑 보여

서 오히려 더 난항을 겪을 것 같으니 도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데 사전에 의논할 때, 가급적이면 뺄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 문구에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해야 된다. 강제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여지껏 국회에서 법을 다루면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한건도 없었고, 다 삭제 당했다. 그러니 겸손하게 보조할 수 있다. 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조항이 도의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시” 자를 빼다고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4조에서 “도연합회장은 시,군의 지역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하여 시·군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 들어갔는데, 6, 7조, 10조 다 “시도” 가 들어가고, “시” 자를 빼지 않고 지사라고 하면 군은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지금 이 “시” 는 삭제를 해야 합니다.

사무처장 여기서 말하는 “시” 는 “광역시” 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6조 2항에 “시” 7조 “시” , 10조, 11조 “시” 를 빼고 해야겠습니다.

사무처장 빼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조례가 있어도 지원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있어야죠. 받고 못 받고는 원장님 활동사항에 따라 다른 것이라 봅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추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에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가 의문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의원입법으로 하면 공무원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2,3안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인가요?

사무처장 의원입법은 의원이 발의하여 이뤄지는 법안이고, 입법청은 저희 쪽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해서 건의하는 것이고, 경기도입법은 경기도차원에서 직접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입법청원으로 해야 좋은 것이고, 심의에 그치면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뜻을 전달해서 하는 것이 좋고, 도에서 직접 입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필요한 법의 상정이 쉽다고 들었습니다. 쉽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작년 상반기에 1억을 책정해달라고 문화관광위원을 만났잖습니까. 조례입법은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3개도에서 한 조례종합이니까 이 내용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시흥에 문화관광위원이 있어서, 연결해줬

는데, 의원님에게 요청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의원님들이 실적 만들려고 하면 역제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활동에 대한 게, 다른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의원입법은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의원은 실적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발의를 민주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할 수도 있고, 발의를 반대당에서 하면 다른 당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양당 대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위원장은 더민주당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가급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하는 게 작전상으로 이로우려 같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잘만 제공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입니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저희도 가끔 문의를 받습니다. 조례발의 할거 없냐고요. 큰 짐만 되지 않는다면 발의 할 거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의원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부천문화원 박형재) “표준” 빼고 “시” 자를 빼고, 단서조항을 빼고, 수정된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다음은 운영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에 임원선임의 건으로 보내드렸습니
다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관한 사항임을, 자료를 최종
점검하다 보니 발견하게 되어 수정해서 추천의 건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은 지역 안배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주시면 하반기 총회 때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장(정원철) 이 부분은 염상덕 회장님께 일임하여 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지금까지 운영위원에 대한 사항은 회장님
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운영위원은 지역안배를 해야 합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그동안 지역안배도 하셨고, 선임순으로도
했으니 그 부분을 안배 하실 겁니다. 회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하반기임시총회 일정 보고하다.

평택문화원장(김은호) 일정상 천안함 관람을 건의, 한국소리터
도 문화시설까지 견학도 하시고, 하루 휴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하반기 임시총회 일정 및 안건 확정 의견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보고하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해외연수에 대해서 4개월 전에 10일 자리를 비우는 것에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연합회에서 밀어붙이는 것처럼 추진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데 사전에 의향도 안 물어보고, 절반도 안가는 데 2천 5백만원 예산을 쓴다? 내가 4개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과반수도 안 가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냐 말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가급적 어디가 좋으나 선택을 해라했는데 사무처에서 무시를 했습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회장님이 의견 참고하셔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전체 원장님들한테도 그렇고 회장, 예정지 선정은 했는데, 어디라고는 선정이 안됐었다. 원장님들한테 동의를 구해라라고 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권역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사전에 내가 31개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난 이거 가만 안둡니다. 내가 집행부에 얘기도 했습니다. 자부담해서 가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과반수도 안 가는데 집행을 한다고요?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계속 이렇게 갔었습니다. 과반수가 가고 안 가고는 본인들 마음인 겁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원장님들한테 물어 봤냐 이겁니다.

김포문화원장(이하준) 이 건은 토론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쪽이 좋겠다고 결정이 된 겁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사전에 허락을 받아라 했는데, 그냥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과반수도 안 가는데 예산을 집행하느냐 했는데 그런 논의도 있었고 공문도 있었는데 의견을 물었다면, 과반수가 안가게 되면 그해에는 안 가느냐 14명 간다는 분들의 희망자를 받았는데 그럼 그 분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문화재단에 얘기하면 문화원에 침 뱉기고, 그걸 감사 때 지적을 하셔야지요. 가기 전에 지적하면 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지적은 할 수 있으되 감사 한 분이 지적했다고 해서 못 가는건 말이 안 됩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가야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회장한테도 얘기하고 처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시한 겁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기간이 장기일 때와 단기일 때 인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50% 꼭 참석시키고 싶죠. 집행부에서는, 참여 인원수는 비슷했습니다. 지난 회의에 토의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좋은 말씀인데 전체 원장님들 회의할 사항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전 회의에서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시겠지만, 넓게 시각을 열리는 차원에서 김원장님이 요구한 데로 시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간다는 분들도 알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이선에서 양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과반수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과반수가 가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었었죠. 다음부터는 더 절차를 거쳐 반영을 하고 이번에는 결정한 사항대로 따라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성남문화원장(김대진) 앞으로 사무국은 이렇게 일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사무처장한테 얘기한 거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라고 말입니다.

안산문화원장(김봉식) 그렇다면 준비위원장을 다른 원장님이 했으면 합니다. 여지껏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장(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장소를 추천하라고 하면 과반수가 나올수도 없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절차는 공정하게 거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머지 보고하다.

<기타사항 : 성남 법적 근거 17조 4항에 관한 건>

10. 제18회 경기도 문화가족합동연수 문화원장 토론

○일 시 : 2016년 12월 9일 13시~14시

○장 소 : 양평문화원

○참석자 :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회장 염상덕 지금부터 2017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아젠다 선언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5년 제1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원장단 분임토론을 통해서 2016년도에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는 이 부분을 해놓자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31개 시군 문화원의 방향을 약속한 선언문을 선포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채택된 아젠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제도적 안정을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제도 개선, 역량강화, 네트워크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한다.” 이에 올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운영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부만 지원받기에 도연합회의 열악한 경상 재정 문제가 매년 총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에 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로부터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키고 결정했다. 지난 11월 25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상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임위를 통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결위 계수 조정 중이고 12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1여 년 동안 문화원장님들께서 도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주셔서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경우,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 부담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비가 대폭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원으로서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구조도 개편해서 법, 제도, 행정, 교육, 홍보, 마케팅, 문화원 복지 등에서 연합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통과가 될 경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제 규정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수정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과보고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장님들께서 함께 약속한 아젠다를 선포하니 논의가 실행되어 어떤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해도 '2017년에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이 이거는 하자' 라고 원장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아젠다 선포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 사무국장, 직원들이 일심하여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알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 지방문화원 방향 수립을 위한 아젠다 설정제안입니다. 2016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육

구 수요 조사 결과를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것들, 지방문화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것들을 각각 5가지를 열거했으며, 그 중 시급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연합회 차원으로

첫 번째 시도연합회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

두 번째 지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문화원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역할을 할 필요.

세 번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네 번째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법규 및 시행령을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

다섯 번째 대도시권, 중소단위, 군단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지방문화원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을의 전통문화자원의 이야기 발굴.

두 번째 생활문화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세 번째 지방문화원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 빨리 개선할 필요.

네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 모델 개발을 할 필요.

다섯 번째 우리 지역 근현대 무형문화자원의 발굴과 콘텐츠화 하여

의미를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지역의 전통문화, 향토문화, 역사, 문화자원 등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지역을 특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문화원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연구 위원들도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도 있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향토문화연구소가 본연의 역할을 찾고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향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갖고, 경기도 지역학 협의체 발족 등을 통해서 지역학 담론을 만들어 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문화자원조사 및 발굴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시군마다 전통시장이 하나씩 다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전통 시장을 다 발굴하고 조사한 자료를 1년에 1권씩 31권을 발간하는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 재구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다른 도에 비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도심지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아젠다가 채택이 되면 이후 네

트워크파티 1부 시상식과 겸해서 '2017년도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장님들이 이렇게 가기로 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아젠다 선정은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본 자료를 공유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장님들이 미리 검토를 하고, 방향과 내용을 준비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젠다'라는 단어가 난해합니다. 도연합회는 지금 보고한 것처럼 예산이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증액되어 시군문화원 부담이 줄어든다던가, 인건비 계상으로 도연합회 인원 정비라든가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토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적을 위한 회의나 선언적인 의미의 선포식보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의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무언가 진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고 조직이 정비되어야하는데 성급하게 선언했다가 실천이 불가능한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회장 (염상덕)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원장님들께 회의안을 공문과 함께 배포해 드리고 미리 생각하실 시간을 드렸으면, 오늘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회장님 의견처럼 아젠다는 원장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심도 있게 토론하여 결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안 외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안이 있는지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 공문으로 배포하여 내년 2

월 총회 때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좋다.

회장 (염상덕) 아젠다 선정은 2월 총회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니, 좀 전에 처장이 제안한 내용 외에도 원장님들이 지방문화원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력이나 조직, 재정 문제, 조례 등 제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의견 주시면, 그것을 안으로 토론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아젠다를 선포한다고 한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요?

회장 (염상덕) 작년 합동연수에서 부회장, 감사, 몇 분의 원장님들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이 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위원회 회의 결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지원조례안 제정을 올려서 잘 통과되었습니다. 또 도에서 사업평가를 잘 받아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증액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협심하여 안을 만들어, 의원님들에게 발제 의뢰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문화원장(조길생) 이런 회의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문화원별로 직원의 숫자가 일정치 않습니다. 적

게는 2명,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어느 문화원이든지 사실 문화원 국장의 급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국장 연봉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슬며시 없어져서 각 문화원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정년이라든가 인사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 연합회 차원에서 정리하여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럴려면 각 문화원의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문화원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다보니 문화원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견으로 좌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장과 문화원장, 이사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문화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공무원 6급에 준한다, 과장은 8급에 준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인건비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인건비 내용이 조례로 안 되었을 때는 해마다 인건비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인건비 조항을 넣어 통과 시켰더니 직원들의 급여가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만큼의 비율로 증액도 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연합회 규정보다는 지자체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양평은 사무국장의 급여는 군 과장급, 사

무과장은 군 계장급에 준하는 급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좋아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급어 체계로 바뀐 뒤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있어서 거부감이 덜합니다. 직원들도 급어 받으려고 일하는 건데, 다른 곳만큼 대우를 못 받으면 직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지역들도 양평과 같은 급어 체계로 바뀌면 급어 제도는 평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장의 경우 지자체장, 의회장과 유대감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어야합니다. 조례가 잘 되어 있어도 문화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니 문화원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하겠죠.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결정되는 것 아니냐.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남문화원장(유병재) 급어 체계는 각 지방문화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남문화원만 해도 열악합니다. 도연합회에서 각 문화원의 사례를 발췌해서 정리를 해주면 지방문화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 인건비 관련하여 요구를 할 때, 어느 문화원은 이런 체계로 급어를 준다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연합회에서 각 문화원의 급어 체계를 파악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지방자치단체장과 원장이 가까우면 문제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천은 3년 전에 이천시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죠. 이천문화원이 10년 후에 어디에 가 있는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연도

별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시청과 의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주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계획의 70%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와 대화하기 쉽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을 하니, 예산과 협조를 구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도 이천문화원은 5개년 계획을 근거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인간관계, 중장기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첫째입니다. 제가 원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산 상승을 요구했는데, 의회나 군청에서 인근 시군 예산과 비교해서 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포천, 파주의 예산과 함께 올렸습니다. 포천과 파주는 인구가 17만이어서 연천보다 몇 배가 더 많기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서 주로 동두천 예산과 비교를 하는데, 동두천문화원도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천이 더 나은 거 같으면서 안 올려 줍니다.

하남문화원장(유병재)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마다 급여 체계를 원장들이 파악하고, 그 근거로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사무처에서 문화원별 직원 급여를 파악하려고 해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 하지 않으려

고 합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문화원 사무국장 중에 예산이 열악한 문화원에 근무하는 경우, 내가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2백만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몇 급 정도에 준해서 받는다.’ 정도의 답변입니다.

하남문화원장(유병재) 저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 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몇 급에 준하는’ 이라던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천 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법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 육성 지원 조례는 의원 입법을 통한 성공한 사례 입니다. 혹시 문화원 중에서 현재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거나 급여 관련 조항이 없다면 의원 입법 방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원장님이나 이사님과 가까운 시의원에게 자료를 문화원 측에서 만들어 줄 테니 입법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에게도 임기 중의 조례 제정은 큰 실적입니다.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용인문화원장(조길생) 도연합회 예산이 예결위가 통과됐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 원장님들 말씀 중 공통된 것은 지자체장과 사이가 좋은 곳들은 좀 낫고 그렇지 않은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받침 하는 건 조례 제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를 근거로 문화원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한국문화원연합회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기술은 하지 않더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직원 급여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는 공문을 지방문화원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그 공문을 근거로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급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다 그랬는데 총회 때 원장들이 모이지 않나. 원장들은 직원 급여를 다 알지 않습니다. 원장들이 자료를 주면 사무국을 안 통해서도 취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양평문화원장(장재찬) 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는 지방문화원과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제정이 됩니다. 급여체계를 만들고 조례에 '급여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같은 조항을 삽입하려고 문화원장들이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회장 염상덕)에게 노력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문화원과 지자체의 상황이나 조례 내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원의 예산이 이러니 우리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문화원장(김문영) 운영이 잘 되는 문화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례입니다. 문화원장 5년차로 여주문화원은 국장 한 명, 간사 한 명이고, 지자체로부터 급여의 47%만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되고 난 후, 회원을 500여명으로 늘리고, 회비로 나머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작년과 금년에 급여가 천5백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어도 우리가 다른 곳들보다 많은 것은 아닙

니다. 우리는 다른 곳처럼 6급이나 8급 이렇게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열악한 지역의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문화원 사 현황, 직원현황, 각 문화원 사업 현황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에서 지자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설문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장 (염상덕) 원장님들께서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원사 현황, 직원 현황, 동아리 현황 등의 조사를 하여 총람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설문지를 꼼꼼히 작성 해주지 않은 문화원들도 있어서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의왕문화원장(한봉우) 네. 봤던 기억이 납니다.

회장 (염상덕) 원장과 지자체장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선거 시즌에 원장님들이 중립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이 출마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원을 했던 사람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했던 사람이 되면 곤란해지죠. 문화원에서는 원만하면 선거에 관여를 안해야합니다. 그래야 누가 지자체장이 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인건비도 조사했었습니다. 10년 일한 사무국장과 5년 일한 사무국장의 급여가 비슷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 직원 현황과 직책을 조사했었죠. 과장, 팀장, 연구원, 주임 등 문화원마다 직책이 다릅니다. 직원 현황도 최소인

곳은 사무국장 1명만 일하는 문화원이 있고, 보통 직원 2명에 사무국장, 원장님 이르고, 직원이 1명인 곳도 많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원장님들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장과 관계가 좋으면 급여를 제대로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처럼 지자체에서 제대로 못 받는 급여를 이어나 회원 회비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은 원장님들은 지자체장과 원만히 잘 지내야한다 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총람을 발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실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좋은 자료이고 잘 만들었다고 더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배포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을 보강하여 배포할 테니 사무국에서 성심성의껏 작성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지방문화원이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그 방법은 경기도에서 지방문화원을 인정하고 경기도청에서 각 문화원으로 기본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매칭을 하게 하면 된다면 지역에 직원이 몇 명이 있건 간에 경기도에서 이천문화원에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면 이천시에서 5천만 원을 매칭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 방향뿐입니다. 곧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도지사에게 건의를 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
서 건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문화원 소개, 연혁, 사업 소개 내용과 함
께 지방문화원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시죠. 문화원장이나
임원들이 사비로 회비를 내는 봉사직이라는 것도 말 할 필요가 있
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대해
서 잘 알릴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방문
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좋은 생각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시기적절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
레 도지사과 대통령을 만났지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실질적
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 문화관광국장과 회의 때 처
럼 자료를 만들고, 어느 원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할 것인
지 역할분담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얻어가지고 나오는
간담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용인문화원장(조길생)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회의 자료를 지사한테 그 날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담당과장과 국장에게 간담회 전에 공유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지사가 국장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의사항을 미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용인문화원장(조길생) 거기서 답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처장 조례 제정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장(조길생)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조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모범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범 안을 회람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안 된 문화원은 모범 안을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광명문화원장(이영희) 언제까지 문화원장들이 지자체장과의 관계로 문화원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정치적인 건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문화원 일은 업무이고 지역 역사적인 것입니다. 연합회에서 문화원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이나 조례의 기준, 타 문화원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만들어주면 지자체와 문화원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기준이 이렇다, 다른 곳은 이렇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화원과 지자체가 충돌이 되었을

때 지자체는 열악한 시군의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문화원이 자료를 활용하든 안하든, 기본적인 체계가 있으면 지자체와의 충돌에서 그 기준을 근거로 문화원의 상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사이가 좋고 일이 원만히 진행될 때는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니 지자체와 무언가 안 맞을 때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 168억 5천,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에 지역 문화 콘텐츠 정리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그 사업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님의 도움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김현미 의원(고양, 더불어민주당)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 되었는데, 그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사업이 살았는지 그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그 내용이 문화원연합회에서 한 문화원당, 1개 문화원당 7천만 원씩 배정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이 고양문화원장(방규동)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현미 의원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최순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은 거의 다 삭감되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로 통과되었는지 아직 결과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통과되었다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개 문화원당 7천만원 씩 배정을 하여 콘텐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제가 점심시간에 그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를 발굴해서 콘텐츠화 하겠다는 사업은 유지가 되었고, 지난 본 회의 때 예산 169억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콘텐츠진흥원 관련, 문화산업과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전통문화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은 국고보조금 원칙 상 법적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방문화원으로 일괄 지원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문화사업처럼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일반단체까지 오픈하여 전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라면 가능한데, 이 예산은 문화원에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경동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

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건물을 세종시에 짓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다. 문화부에서 토지를 마련하면 지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법까지 마련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콘텐츠진흥원으로 배정했었고, 각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보내라던 사업이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향토사료보관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문화원의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려면 결국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료관을 짓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을 사료관 내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어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이 예산이 승인되면, 각 문화원으로 일괄 7천만 원씩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광역시도로 내려 보내고, 그 다음 지자체에서 매칭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아까 원장님이 질문하셨지만 문화원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광역시도연합회를, 광역시도연합회가 각 지방문화원을 통제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각 지방문화원은 독립법인이죠. 그래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

원연합회는 회원단체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임기 순서를 보니 제가 13번째이고 그 뒤로는 전부 다 바뀌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막 시작하는 원장님들은 원장 초기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나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다른 지역 원장들이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가르쳐 줄 기회가 없으니까 받은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장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총회 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31명의 절반쯤 됩니다. 전원 간부화로 모든 원장이 이사가 되는 건 어떤한가요?

의왕문화원장(한봉우) 토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천원장님과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님 말씀대로 도지사 간담회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장님들 중 몇 분 위원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 때 참석자 모두 다 의견을 낼 수 없으니 사전에 의견을 종합해서 건의하여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의정부문화원장(조수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장님들은 한 가지씩 의견을 내 달라. 그 중 취사선택하도록 하지요. 도연합회에서 의견을 안 낸 문화원은 없는 걸로 간주해야 합니다.

회장 (염상덕) 15일까지 각 문화원에서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이천문화원장(조명호) 의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건의하고 싶다. 우리 원장 31명이 4년, 8년 길게는 12년도 만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는 해의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원장님들이 모이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마련해주면 합니다. 이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연락도 없으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도 문화원은 원장 퇴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구나하는 걸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연천문화원장(이경순) 이거는 말씀하신 김에 이번 광명원장님 임기가 끝나시니까 추진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회장 (염상덕) 그래서 작년에 이천문화원 쌀축제 때 축제 참가 겸 임시총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에서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나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에 못 나오시면, 1년에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없던 임시총회도 만들었던 겁니다.

고양문화원장(방규동)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회라고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의견이다. 의견을 정리해서 문화원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원장님들

이 모이시는 내년 정기총회 때, 지방문화원의 2017년 방향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회장 (염상덕) 사무처에서 오늘 나온 사항에 대해 정리해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1.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 일 시 : 2016년 12월 25일 12시
- 장 소 : 경기도굿모닝하우스
- 참석자 : 26개 시군 문화원장
- 내 용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① 지방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지원 (부천 문화원장)

□ 현 황

- 문화원 근간인 지역향토 문화연구를 위한 향토문화연구소 부설 기관 운영
- 예산지원이 없어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요청

② 지방문화원 중심의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시흥 문화원장)

□ 현 황

- 지방문화원 사업추진의 지역 특성화(지역 문화원형 발굴·조사·활용)사업이 핵심임
- 경기도는 율곡 등을 포함한 유학적 전통의 선구자가 지역마다 포진해 있음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 건의사항

○ 경기도의 특성화사업이 가능토록 지원 필요

예시) 경기도 유교콘텐츠 특성화 사업 (가칭) 경기유교벨트사업

- 파주 을곡학, 남양주 다산학, 시흥 하곡학, 안산 성호학 등, 타 시·도와 차별 사업 필요

□ 답변내용

⇒ 2016년 도단위 문예진흥 예술단체 사업은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경기도 문화원, 경기민예총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문화원은 총 20억 예산 중 7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음. 2017년 또한 도단위 문예진흥 예술단체 사업은 20억 예산반영 되었음.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사업이 아닌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원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기 타 사 항(이천문화원장)

□ 요청사항

- 도지사님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적극 참가 요청 (최소 3회)
 - 경기도민속예술제 / 페스티벌 31 /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 경기도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경기도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

□ 답변내용

⇒ 경기도 민속예술제, 페스티벌31은 향토문화와 지역문화를 계승·보존의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행사의 모범이 되며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는 문화원 간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계기가 되는 대표행사라 알고 있음. 2017년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음. 또한 문화재 환수는 2016년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지원조례(2016.5.17.)가 제정되었음. 2017년에는 실태조사 및 문화재청·민간단체과 협력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겠음.

기 타 사 항(의정부문화원장)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문화원 지원가능

□ 현 황

- 문화재단의 도비지원이 예술행사(축제, 공연, 홍보행사 등)에 편중
- 도비지원이 예술행사에 편중되어 전통문화계승 발전사업 추진 곤란

□ 건의사항

- 도 문화재단의 지원을 전통문화 사업분야 및 문화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비 지원범위에 문화원 포함 건의

□ 답변내용

⇒ 문예진흥기금은 공모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지역에
술활동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임. 전통예술은 지역
예술활동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원은 도 및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
원받은 단체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III. 결 과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지원 조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6.]

(제정) 2016-12-16 조례 제 54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과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지회를 말한다.
2. “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예산에 보조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행인 연상덕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 e l 031-239-1020
F a x 031-239-3875
인 쇄 2016년 12월 28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인 쇄 처 글그림
이 책 은 '2016년 경기도 보조금'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